

CDMO 몸집 키우는 제약바이오... ‘제2반도체’ 꿈 꾀다

〈위탁개발생산〉

삼바, 3분기 누적 매출 3.3조
업계 첫 연 매출 4조 시대 눈앞
1.7조 규모 초대형 계약 성과

셀트리온, CDMO 사업 가시화
연내 100% 자회사 법인 설립
이스라엘 제약사와 계약 체결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이 새로운 핵심 성장동력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국내의 바이오의약품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국내 기업들은 바이오시밀러를 비롯한 신약개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데 이어 의약품 생산 능력까지 확보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이다.

30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표 CDMO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중 처음으로 연 매출 4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은 3조2909억원, 영업이익 9944억원이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6%, 30% 늘어난 규모다.

아울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현재까지 기록한 올해 누적 주주 금액은 총 4조3600억원으로 이미 4조원을 넘겼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초대형

계약에서 연이어 성과를 거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2일 아시아 소재 제약사와 1조7028억원 수준의 의약품 위탁생산(CMO) 계약을 맺어, 앞서 올해 7월 미국 소재 제약사와 체결한 1조4637억원 계약 기록을 경신했다.

이 같은 호실적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압도적 생산능력, 신규 플랫폼을 통한 품질 경쟁력, 다수의 글로벌 고객사와의 파트너십 지속 등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동반 성장을 이뤄 ‘삼성바이오’ 형제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을 더욱 높였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올해 3분기 누적 매출 1조1403억원, 영업이익 3631억원으로 연간 최대 실적을 조기 달성했다.

올해 3월부터 미국 의약품 시장에 신약으로 내놓은 ‘집젠트라(성분명: 인플릭시맵)’를 ‘국산 1호 글로벌 블록버스터 제품’으로 키우고 있는 셀트리온도 CDMO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낸다.

셀트리온은 자사가 보유한 바이오의약품 개발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해 낮은 증설 비용, 높은 생산성 등을 갖춘 CDMO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 셀트리온은 지난 18일 자사 홈페이지에서



尹, 신한울 원전 3·4호기 착공식 축하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북 울진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서 축하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올해 안에 셀트리온 100% 자회사 법인을 설립해 오는 2025년부터 설비 증설 및 영업활동에 나서겠다고 공식 공지하기도 했다.

또 셀트리온은 지난21일에는 이스라엘 제약사 테바파마슈티컬스인터내셔널과 편두통 치료제 ‘아조비’ 원료의약

품 위탁개발생산 계약을 체결해 CDMO 사업을 가시화했다. 해당 계약 규모는 1000억원 수준이고 계약 기간은 오는 2025년 7월 30일까지다.

동아쏘시오그룹도 계열사인 전문의약품 기업 동아에스티가 개발한 ‘이물도사(성분명: 우스테키누맵)’의 미국과

유럽 시장 진출을 예고하면서, 해당 제품의 글로벌 발매에 발맞춰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회사 에스티젠바이오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에스티젠바이오의 핵심 사업은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과 CDMO다.

〈2면에 계속〉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日 자민당 총선 참패에 엔화 ‘털썩’

원·엔 환율 3개월 만에 최저치
이시바 조기퇴진 가능성에 약세

원·엔 환율이 3개월 만에 100엔당 900원 초반까지 떨어지며 약세다. 일본 자민당이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해 이달 초 취임한 이시바 총리가 ‘레임덕’에 빠졌고, 조기 퇴진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엔화 가치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일각에서는 올해 7월 이전의 ‘초엔저’가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30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엔 환율은 전일보다 4.98원(0.58%) 내린 100엔당 901.50원에 오후 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이는 지난 7월 말 이후 3개월 만에 최저치로, 지난 28일 기록했던 903.43원보다도 1.93원 더 내린 수준이다.

최근 엔화 가치 하락은 지난 27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왕원제의 하원에 해당) 선거에서 집권당인 자민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해서다. 중의원은 총리 임명권, 내각불신임 투표권 등의 권



한을 갖고 있으며 입법권에서도 참의원(왕원제의 상원에 해당)보다 우선시 된다.

이달 초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사진)는 전임자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임기 말 하락했던 자민당의 지지율을 만회하고자 취임 직후 중의원을 조기 해산하고 선거를 앞당겼다. 이시바 총리가 당내 비주류로 평가받았던 만큼 ‘하니문 효과(내각 교체 시의 지지율 상승)’를 노린 것이다.

하지만 지난 27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당인 자민당과 연립 정당인 공명당은 전체 465석 중 215석(자민당 191석·공명당 24석)만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직전 의석수였던 279석보다 64석 줄었다.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15년 만이다.

〈2면에 계속〉

/안승진 기자 asj1231@

신세계 정유경 회장 승진... ‘계열분리’ 본격화

정용진 단독체제서 각자경영 선언
본업 경쟁력 회복으로 수익성 강화

신세계그룹이 이마트부와 백화점 부문의 계열분리를 본격화하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30일 단행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을 회장으로 선임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단독 체제에서 백화점 부문과 이마트 부문 두 개로 분리함으로써 본격적인 남매경영이 시작됐다는 평가다.

신세계그룹은 지난 2019년 ㈜신세계와 ㈜이마트가 실질적인 지주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백화점부문과 이마트부문을 신설해 계열 분리를 위한 사전 준비를 시작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백화점부문은 신세계백화점을 필두로 패션·뷰티, 면세와 아웃렛 사업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확대해왔다. 이마트부문 역시 이마트를 중심점으로 스타필드, 스타벅스, 편의점과 슈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정유경
(주)신세계 회장

퍼 등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 전반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입지를 다져왔다.

신세계그룹은 올해가 성장이 가시화되고 있어 본업 경쟁력 회복을 통한 수익성 강화 측면에서 계열을 분리하는 게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는 후문이다. 그룹을 백화점과 이마트란 두 개의 축으로 나눠 양쪽의 성장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신세계그룹 측은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계열 분리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

한 조치”라며 “이번 인사를 시작으로 향후 원활한 분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역량을 모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인사를 통해 정용진 회장은 적재적소에 핵심 인재들을 배치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한채양 이마트 대표이사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한다. 또 김홍극 신세계까사대표는 신세계인터내셔널 뷰티&라이프부문 대표를 겸직하게 됐으며, 조선희호텔리조트대표에는 전상진 이마트 지원본부장이 내정됐다. 신세계L&B 대표에는 마기환 대표를외부에서 영입했다. 신세계야구단 대표에는 김재섭 이마트 기획관리담당 이 발탁됐다.

이날 임원인사 발표 이후 각 부문은 신속하게 후속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백화점부문의 경우 뷰티전략TF(태스크포스)와 비주얼전략TF를 신설했다.

〈2면에 계속〉

/최빛나 기자 vitna@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대통령실, 北 내달 핵실험 가능성에 “언제든 결행 가능”
▲ ‘창당 7주년’ 진보당 “대선에 야권연대 등 모든 시도”
/사진 뉴시스

▲ 금투세 놓고 여야논쟁... 조국혁신당 개정안 발의 “예정대로 시행”
▲ 주한 중국대사 3개월 공석... 미 대선 이후 임명 가능성 ↑



▲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설치... 위원장에 서영교
▲ 당장제정용 이춘식 할아버지,尹정부 ‘제3차 변제안’ 수용
/사진 뉴시스

고려아연, 2.5조 규모 유상증자… “국민기업 거듭날 것”

이사회서 ‘일반공모 증자’ 의결
총 모집 주식수 373만2650주
80% 일반, 20% 우리사주 배정

이차전지 등 국가산업 육성 계획
할인율 30% 적용, 발행가액 책정

고려아연이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통해 ‘국민기업’으로 거듭난다. 유상증자 규모는 2조5000억원이다. 소액주주와 기관투자자, 일반 국민 등 다양한 투자자가 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소유 분산을 통한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소액주주와 일반 국민에게 분산된 소유구조에 맞도록 획기적으로 개방적인 지배구조 및 경영구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30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공개매수 결과 및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 사항 등을 보고하고, 부의안건으로서 일반공모 증자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추후 청약 공



고려아연이 30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일부를 우리사주조합에 넘기는 방안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고를 시작으로 일반공모 증자를 실시한다. 총 모집주식 수는 373만 2650주로 고려아연이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소각대상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수의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신주 발행가는 주당 67만 원이다. 이를 통해 모은 자금 2조5000억원은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하고, 일부는 채무상환에도 사용될 예정이다.

고려아연은 우선 이번 총 모집주식 중 80%에 대해 일반공모를 실시하며

나머지 20%는 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할 방침이다.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우리사주조합을 제외한 모든 청약자에 대해서는 그 특별관계자와 합해 총 모집주식수의 3%인 11만 1979주 내에서만 배정할 방침이다. 이는 주주기반을 확대해 국민기업화를 추진하기 위한 일환이다. 일반공모 증자 시 1인당 청약 한도를 정해 놓는 실제 사례는 다수 존재한다.

발행가액은 청약일 전 3거래일부터

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가격으로 하고, 발행공시규정 한도에 따라 할인율 30%를 적용한 금액을 발행가액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고려아연은 이번 일반공모 증자를 통해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유분산구조와 주주기반 확대 등을 통한 ‘국민주’로서 자리매김 ▲거래량 축소로 인한 상장폐지 리스크 해소 및 주식 유

동성 증대를 통한 주가 불안정성 해소와 주주보호 ▲MSCI Korea 지수 편출리스크 축소 ▲자금조달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토대 강화 및 재무구조 안정화에 기여 ▲우리사주 배정을 통한 임직원 복리 및 노사협력 증진 등이다.

고려아연은 이번 증자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를 적극 진행하고 일부는 차입금 상환에도 사용할 계획이다. 신사업 트로이카 드라이브(▲신재생에너지 및 그린 수소 ▲이차전지 소재 ▲자원순환 사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은 고려아연의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이익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국민을 상대로 한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통해 적대적 M&A와 이로 인한 기술유출, 나아가 국가기간산업의 해외 매각 등을 방지해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임직원과 협력업체,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 전체의 이익 보호함으로써, 진정한 ‘국민기업’으로 거듭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북한군 3000명, 러 교전지역까지 이동”

대통령실 “파병 최고 1.1만명 판단”
우크라, 파병대응 특사파견 논의

대통령실은 30일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 3000명 이상이 러시아 서부 교전지역 가까이 이동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하기 위한 특사 파견 논의를 이번 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 직접 지원을 검토한 적은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와 우방국 정보당국은 이미 실행된 북한군 파병규모를 최소 1만1000명 이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그 중 3000명 이상은 이미 러시아 서부 교전지역 가까이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보당국 발표 이후에 국제사회 규탄이 시작되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10월23일에서 2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고, 최섉희 북한 외무상이 현재 러시아에 방문해 있는 등 긴급히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 27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헤르손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러시아 진지를 향해 122mm 포를 발사하고 있다. /뉴시스

파악된다”고 전했다.

북한군은 러시아 군복과 무기체계를 사용하면서 러시아 군 체제로 편입된 위장파병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의사소통 문제 등 여러 장애 요인이 감지되고 있어서 실제 전투에 언제 참여할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 특사파견논의를 이번 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측에서 특사를 지

정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이야기할 플랜을 짜는 데는 하루, 이를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29일)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국과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조만간 한국에 특사를 파견하기로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특사가 방문하면 협력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다음 단계적 조치”의 결정적 기준에 대해 “북한군이 참여한 우크라이나 전투 개시가 될 것”이라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안보를 지켜야 하는 관점에서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가 한국에 포탄 지원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포탄은 105mm, 155mm 등 여러 구경이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우리에게 포탄 지원 요청을 한 적이 없다”며 “따라서 우리가 155mm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틀린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서예진 기자 syj@

정유경 회장, 시코르 총괄 대표직속 신설

» 1면 ‘신세계 정유경 회장…’서 계속

또, 디지털 조직 강화를 통해 총괄·본부·담당 체제를 구축하고 기존 디지털 인텔리전스 총괄에서 디지털&글로벌 총괄로 개편했다.

특히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뷰티 편집숍 시코르(CHICOR) 총괄을 대표 직속으로 신설했다. 신세계백화점이 운영하는 뷰티 편집숍 시코르 정 신

임 회장이 해외 편집숍에 대해 직접 구상한 사업이다. 시코르는 최근 AK 플라자 홍대점을 리뉴얼하는 등 뷰티 판매 채널로서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마트부문은 조직 개편을 통해 판매 본부와 트레이더스 본부를 영업본부로 통합했다. 이마트 전략 마케팅 본부도 신설했으며, B2B 사업 조직을 일원화해 운영키로 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엔·달러 환율 153엔 중반까지 치솟아

» 1면 ‘日 자민당 총선 참패…’서 계속

자민당과 공명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이시바 총리는 총리직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달 11일 특별국회 개회 전까지 야당 중 한 곳에 협조를 구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의 지지율은 중의원 선거 직후 32%까지 하락했다.

총리 취임 한 달 만에 ‘레임덕(권력 누수)’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만큼 일각에서는 이시바 총리의 조기 퇴진 가능성도 제기되며 엔화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

이시바 총리의 조기 퇴진 시 가장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인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일본은행(BOJ)의 금리 인상 기조를 반대하고 있다. 이시바 총리가 중도 퇴진하지 않더라도 야당에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경기부양책 등으로 엔화 약세를 촉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엔화 가치는 빠르게 하락했다.

엔화 가치의 척도가 되는 엔·달러 환

율은 지난 28일 달러당 153엔까지 치솟아 3개월 만에 최고치(엔화 가치 최저)를 기록했다.

엔화 가치 급락에 일본 외환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서면서 엔·달러 환율은 29일 오후 달러당 152엔 후반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30일에는 다시 153엔 중반까지 상승했다. 엔·달러 환율이 연중 최저치(엔화 가치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 9월 16일 대비 14엔 상승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라 엔화 가치가 당분간 약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위원은 “중의원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가 참패하면서 당분간 아베노믹스 정책 기조 지속은 물론 재정부양책이 한층 강화될 여지가 커졌다”며 “이에 엔화 추가 약세 기대감도 강화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 이후 이시바 총리의 조기 퇴진 가능성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 또한 엔화의 추가 약세가 예상되는 이유”라며 “이시바 총리 조기 퇴진 시 일본 은행의 긴축기조 전환 속도가 더딜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에스티젠바이오, 영업익 4억 ‘흑자전환’

» 1면 ‘CDMO 몸집 키우는…’서 계속

실제로 에스티젠바이오는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우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cGMP) 승인 획득, 유럽 의약품청(EMA)의 우수약품 품질관리 기준(GMP) 심사 통과 등을 완료했다.

에스티젠바이오는 올해 상반기 매출

로 전년 동기 대비 19.1% 증가한 192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적자를 지속하던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한 4억원을 기록했다.

국내 대표 정통 제약사인 유한양행도 자회사 유한화학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의 하나로 원료의약품 CDMO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유한화학의 올해 상반기 누적 매출은 1186억원인데,

유한양행 전체 매출에서 유한화학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2.2%다. 유한양행은 해당 매출이 유한양행의 해외 사업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한양행은 지난 9월에는 글로벌 빅파마 길리어드 사이언스와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치료제의 원료의약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유한양행은 유한화학과의 협력해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에 대한 해외 파트너사를 지속 발굴해 해외 시장을 개척한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본청약 분양가 수천만원 ‘깡충’… 당첨자들 자금마련 난감

사전청약 후폭풍

② 분양가 갈등 고조

공사비 인상 등 확정 분양가 급등
LH “지연기간 상승분 최대한 억제”
당첨자 “추정분양가 수준 산정해야”

“신호희망타운 지원 자격은 월 소득 기준 422만원(3인 가구·세전)인데 당첨자들은 본청약이 지연된 11개월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돈을 모으더라도 6500만원을 마련하지 못한다.”(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3년을 기다렸던 본청약이 시작됐지만 당첨자들이 줄줄이 청약 포기하고 말았다. 분양가가 사전청약 당시 안내된 것보다 수천만원씩 뛰면서다.

이달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조차 추정 분양가보다 급등한 본청약 분양가가 도마 위에 올랐지만 어디 한 곳 속 시원히 해결책을 마련해주는 곳은 없었다. ‘최대한 억제’, ‘합리적으로’, ‘온전히 전가되지는 않도록’ 하겠다지만 앞으로 분양가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 추정-확정 분양가 도마위

3기 신도시의 본청약이 본격화됐다.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가장 먼저 1차로 진행했던 인천계양 지구가 본청약의 스타트도 끊었다.

문제는 분양가다. 본청약이 당초 예상했던 시점보다 1년 가까이 늦어졌고, 그간 공사비 등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우려했던대로 3년 전 추정 분양가보다 크게 뛰었다.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르면 인천계양 A2블록의 확정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으로 전용 59㎡ 4억2060만원, 74㎡ 5억1372만원, 84㎡ 5억8411만원이다. 사전

본청약·사전청약 분양가 산정 기준		
	사전청약	본청약
분양가	추정분양가격	확정분양가격
택지비	간이감정 (컨설팅, range)	정식감정
건축비	고시단가 (사전청약시점)	고시단가 (본청약시점)
가산비	과거가산비용적용 (가산항목미확정)	평가수수료, 기간이자, 초과복리시설 등 실제항목가산

청약 당시 추정분양가는 59㎡ 3억5628만원, 74㎡ 4억3685만원, 84㎡ 4억9387만원이었다.

모든 평형에서 최소 6000만원, 최대 9000만원 이상 뛰었다. A2블록의 사전청약 당첨자 562가구 가운데 41.8%인 235가구가 본청약을 포기했다.

전용 55㎡ 평형을 단일 공급하는 A3블록도 확정 분양가가 최고 4억480만원으로 추정 분양가 3억3980만원보다 6500만원 올랐다.

사전청약에 있어 분양가 갈등은 처음부터 불가피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청약 단지를 비롯한 분양가는 사전 청약 당시가 아니라 실제 청약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산정된 분양가상한금액 이내에서 주변 시세와 분양성, 손익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최근 몇 년 사이 공사비가 큰 폭으로 오른데다 본청약 지연에 따른 상승분까지 당첨자들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 LH “지연기간 상승분만 책임”

이한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분양가 상승 대책에 대해 “본청약 지연 기간 분양가 상승은 원칙적으로 LH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이후 LH 역시 공식적으로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이 지연된 경우 당초 안내한 본청약 시점까지의 지가 및 공사비 등 상승 요인은 분양가에 반영하고, 지연 기간의 분양가 상승은 최대한 억제해 인상분이 온전히 사전청약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분양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첨자 입장에서는 기대와 달리 앞

으로도 본청약시 분양가 상승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계양 사례를 보면 이미 지연기간의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고도 분양가가 수천만원씩 뛰었다.

LH는 “인천계양 A2·A3의 경우 사전청약 당시부터 당초 본청약 시점까지의 지상층 기본형 건축비의 상승률이 18.8%”라며 “(지연된 시점이 아닌) 당초 본청약 시점까지의 상승요인 내에서 평균 분양가가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 당첨자들 “분양가 상승, 본청약 포기 결정적 요인”

공공 사전청약 지연 피해자모임은 경기 과천 주암지구 신호희망타운 사전청약 당첨자 1006명(682가구)을 대상으로 본청약 분양가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신호희망타운은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응답자 대부분인 97.2%가

분양가 상승이 본청약 포기에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10명 중 7명은 ‘추정 분양가도 출산 계획에 부담이 된다’고 밝혔으며, 자녀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분양가 추가 부담 금액은 ‘분양가 5% 상승’과 ‘10% 상승’이 각각 18.7%, 9.9%였다.

‘본청약을 포기하게 된다면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인가’는 질문에는 ‘분양가 상승’이 91.1%로 절대적이었고 ▲작은 평수 5.7% ▲타 주택 구매 1.3%, ‘일정 지연’ 1.2% 등의 응답 순이었다.

피해자모임은 “LH가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본청약을 포기하는 근본 이유를 받아들이고, 분양가 산정을 국정감사의 답변처럼 원가 수준, 피해자 입장에서 사전청약 시 공고한 추정분양가 수준에서 산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통계청·행안부, 2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체류인구 4배… 2800만명 돌파

(전분기비)

강원도 양양군 체류인구 비율 1위
1인당 평균 카드 사용액 11만5000원

국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등록 거주민+체류인구)가 올해 6월 기준 2850만 명으로, 3월과 비교해 석 달 사이 약 14% (350만 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인구감소지역에 6개월 내 재방문한 비율은 34.7%로 나타났다.

통계청과 행안부 안전부는 30일 89개 인구감소지역의 2024년 2분기 생활인구를 산정한 결과를 발표했다. 89곳의 남자 인구(1312만 명)는 여자 인구(1045만 명)의 약 1.3배였다. 등록인구의 경우 내국인은 매월 감소를 보이는 반면, 외국인인 증가는 추세를 나타냈다.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새로운 인구개념이다. 올해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통계청과 행안부가 협력해 산정하고 있다.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사람들의 수를 의미한다.

산정 결과를 보면 체류인구는 2360만 명이고 등록인구는 490만 명으로 나타났다.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는 4.8배이며, 지난 1분기 수치인 4.1배보다 늘었다.

특히, 강원 양양군 체류인구가 등록인구 대비 17.4배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분기 10.2배보다도 더 증가했으며, 양양군 관광 자원을 즐기기 위한 관광객 등이 지속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관계자는 “체류인구가 활동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2분기 전반에 걸쳐 늘었다”며 “특히, 5월의 경우, 가정의 달과 기념일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 중 체류인구가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6월 기준 체류인구의 1인당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5000원이었다. 지역별 카드 사용액 중 등록인구가 쓴 비중은 56.8%, 체류인구가 쓴 비중은 43.2%로 이는 등록인구 카드 사용액의 76% 수준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KB금융그룹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

세상을 바꾸는 금융

금융을 잘 안다

보험을 잘 안다

그래서

KB손해보험이다

보험도 결국 금융이니까!

금융을 잘 아는 KB가 보험도 잘 합니다

알면 알수록 보험은 KB손해보험입니다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주택보험

자녀보험·태아보험

여행자보험

암보험

ペット보험

KB손해보험

“AI가 판 바꿨다”... 반도체 시장, 새로운 게임 체인저 부상

AI 도입에 따른 업계 성과 격차
AMD, AI 데이터센터 매출 2배 성장
SK하이닉스, AI 메모리 부문 성과
삼성, AI 대응 미흡으로 매출 하락
인텔, AI 반도체 생태계 진입 부진

인공지능(AI)이 또다시 반도체 기업의 희비를 가르며 ‘AI 거품론’을 불식시켰다.

국내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3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가운데 AI 생태계에 빠르게 올라탄 기업들이 시장전망치에 상회하는 호실적을 내놓았다. 반면 AI 관련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들은 저조한 성과를 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3분기 실적에서 AI 관련 사업의 성장 여부를 바탕으로 엇갈린 결과를 나타냈다.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3분기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AI 열풍에 올라탄 기업과 아닌 기업 간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DALL-E 이미지

이날 3분기 실적을 발표한 AMD는 AI 반도체 사업부문과 아닌 부문의 매출이 대조적으로 나타났다.

AMD는 이번 3분기 매출 68억2000만 달러, 주당순이익 0.92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AI와 관련된 핵심 사업인 데이터센터 사업 매출은 2분기 연속으로 2배 성장해 총 매출은 전년 대비 122% 증가한 35억 달러에 이르렀다. 다만 게임

부문에서는 전년 대비 매출이 68% 감소해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AMD는 이달 초 공개한 새 AI칩 MI325X가 오는 4분기와 2025년 상반기까지 매출 성장을 큰 폭으로 견인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

리사 수 AMD CEO는 “MI325X 공개 후 고객 및 파트너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분기 중 출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실적을 발표한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등 우리 기업을 또한 AI 수요에 큰 수혜를 입었다.

지난 24일 SK하이닉스는 AI 반도체의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 매출 성장을 토대로 분기 최고 실적을 갱신했다. SK하이닉스에 따르면 3분기 HBM 매출은 전 분기 대비 70% 이상, 전년동기 대비 330% 이상 증가했다.

한미반도체 또한 HBM용 TC본더를 바탕으로 올 3분기 매출액 2085억원, 영업이익 993억원을 기록하며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한미반도체 관계자는 “올해 3분기부터 시작된 인공지능 반도체의 핵심인 고대역폭메모리(HBM)용 TC 본더의 본격 납품과 내년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HBM TC 본더 전용 신규 공장 증설을 통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AI를 중심으로 재편된 반도체 시장에서 AI 경쟁력을 잃은 기업들의 성과는 처참하다.

올해 엔비디아에 HBM 납품을 실패한 삼성전자는 이번 3분기 반도체(DS) 부문 실적이 추락하며 경영진이 실적 부진에 대한 사과문을 내기에 이르렀다. 올 2월 삼성전자는 업계 최초로 HBM3E 12단을 선보였으나 4분기에 접어들 현재까지도 납품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

이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석좌교수

는 ‘2025 한국경제 대전망’을 내며 “반도체 생산의 패러다임이 D램 같은 소품종 대량생산 위주에서 인공지능(AI) 칩,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의 다품종 맞춤형 생산으로 변했으나 삼성전자가 흐름을 놓쳤지만 SK하이닉스는 흐름의 변화를 잡았다”고 평가했다.

AI 기술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시장의 재편과 각 기업의 희비는 AI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배경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

인텔은 대표적으로 AI 경쟁력을 잃으며 실적이 악화된 기업이다. 인텔은 2분기 AI 생태계에 올라타지 못하며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에서 탈락할 위기에 처했다. 이미 시가총액으로는 세계 10대 반도체 기업에서 밀렸다. 인텔은 여전히 수요가 낮은 CPU를 중심으로 하는 제품 포트폴리오가 문제로 지적됐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범용 제품 수요 부진 등으로 반도체 조기 겨울론이 제기됐지만 AI 반도체 수요의 중심에 있는 주요기업들이 뜨거운 여름 이상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 통신사, 일반 기업, 서버(Sovereign)·주권 AI 수요 등을 감안할 때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는 2025년 이후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문화예술로 쌓아온 57년 부산은 행복합니다

문화로 웃음을 키웠습니다
예술로 일상을 빛냈습니다

부산의 행복이 문화예술로
더 커질 때까지
지난 57년처럼, 멈추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BNK가 함께 가겠습니다

BNK 부산은행



[이 광고는 생성형 AI로 제작되었습니다]

AI·클라우드가 성패 갈랐다 구글 웃고, 애플·아마존 울상

이번주 빅테크 3분기 실적 발표
구글, 클라우드 매출 35% 성장
애플·아마존, 아이폰·AWS 부진

이번주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을 필두로 애플까지 빅테크 기업들의 3분기 성적이 대거 발표된다. 이번 실적은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AI) 사업 진행 수준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된다. 클라우드 성적을 통해 향후 전망치와 함께 AI에 대한 투자 규모와 산업 성장도를 확인할 수 있다. 알파벳, MS, 메타, 아마존 모두 AI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구글이 비판론을 잠재우고 호실적을 발표한 반면 애플이 부진한 실적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구글, 비판론 잠재운 호실적 공개

3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9일 최대 검색엔진 업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을 시작으로 5개 빅테크 기업이 7~9월 분기 실적을 내놓는다. 30일에는 시가총액 3위 마이크로소프트(MS)와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이 실적을 발표했고, 하루 뒤인 31일에는 애플과 아마존이 각각 실적을 내놓는다.

먼저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지난 29일(현지시간) 3분기 매출 882억7000만 달러(약 122조원), 주당 순이익 2.12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했다. 이는

시장조사업체 LSEG가 집계한 월가 전망치 863억달러를 넘어선 성적이며 주당 순이익도 전망치 1.85달러를 상회했다. 성장을 이끈 건 클라우드 부문이었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클라우드 부문은 35% 증가한 113억 5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34.9% 증가했다.

◆애플, 아마존 실적 '관건'

메타는 30일(현지시간) 올해 3분기 실적을 공개한다. 온라인 광고 사업과 AI 투자 규모 외에 AI 관련 사업 확장 여부가 관건이다. 다음 날인 31일에는 애플이 실적을 공개한다. 아이폰16 등 전자기기를 비롯해 AI를 적용한 애플 인텔리전스의 성적이 전체 실적을 좌지우지 할 전망이다. 문제는 애플의 아이폰 16 시리즈가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량 부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아이폰16 출시 첫 주 판매량은 3700만대로 전작 대비 12.7% 줄어든 규모다.

아마존도 애플과 같은 날 3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주력 사업인 아마존웹서비스(AWS) 매출과 AI 투자 및 사업 확장 연발 소비 성수기를 앞두고 경영진의 판매 전략에 관심이 집중된다. 또한 아마존에 대해선 “아마존의 마진은 이미 정점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진한 3분기 실적과 함께 급격한 매도세가 연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우리 마음속
첫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퇴직연금, 우리로 넘어와!

수익을 지키며 보유 상품 옮겨주고
IRP 수수료는 0원이니까

요즘 다들 넘어오는 이곳

우리 연금프렌즈



우리 연금프렌즈
상품 안내 영상

퇴직연금의 A TO Z, 우리 연금프렌즈

비대면 IRP 수수료 0원	수많은 연금 전문가	다양한 투자상품	꼼꼼한 사후관리
비대면 신규가입시 운용, 자산관리 수수료 면제 (펀드운용시 보수 별도 부과)	168명 연금 전문가 전국 지점 상주 중 (*24년 8월 말 기준)	ETF부터 TDF까지 457개 이상 엄선한 투자상품 (*24년 8월 말 기준)	연중 수시 수익률 피드백

우리은행

* DCA(달러)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장치는 별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DCA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실적배당형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지 않으며 금융상품 가입 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 가입하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 방법, 보수 등에 관하여 (201)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비대면으로 개인형 IRP 계좌 개설 시 운용 자산관리수수료는 0원입니다. 단, 최초 입금일로부터 1년 경과 전 타 금융기관 이전 또는 중도해지 시 전제 기간 내 연 수수료율 적용합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과 퇴직금을 펀드 운용 시 운용 금액에 대한 펀드 보수 별도 부과됩니다. * 계약 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하거나 납입 기간 종료 후 연금 이의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 연금 및 수익에 대해 가산소득세(6.9%)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해당 퇴직연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 내용은 가입 전에 핵심설명서와 약관을 필독하시고 공정한 사항이 있으면 영입점 또는 퇴직연금지원고객센터(1999-10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법령시인 심의일 2024-10094(2024.10.10~2025.12.31)

한동훈 “與 변화·쇄신 주도해야… 첫걸음이 ‘특별감찰관’”

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

尹·김건희 여사 직접적 언급 없어
공멸 가능성에 발언 수위 낮춘 듯
특별감찰관 질문에 “관철될 것”
수평적 당정관계 구축 제도 논의 중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빈손 면담’ 이후 강조하고 있는 특별감찰관 도입을 한번 더 강조하며 김건희 여사를 겨냥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과거와 다른 수평적 당정관계로의 발전적 전환은 국민의힘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 “최근 드러난 문제들을 비롯해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지점들에 대해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언급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정치권에선 윤·한 면담 이후 한 대표가 대통령실과 대립각을 세우며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도 관측됐으나, 당내 중진들의 우려 등이 나오고 여권의 공멸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발언 수위를 낮춘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기자들이 질의응답에서 특별감찰관에 대한 질문을 쏟아내자 한 대표는 “미래의 관한 것이고 앞으로 더 조심하겠다는 것인데, 조심 안할 것인가. 관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지난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자신의 요구한 김건희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쇄신 ▲공개활동 중단 ▲의혹 해소 협조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후 공개석상에서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를 감사하는 특별감찰관 국회 후보 추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야당이 북한인권재단 후보를 추천해야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바 있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힌 후 국장감사가 끝나고 의원총회를 열고 당 내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 문제 해법에 대해 “권력을 감시하고 권력 문제를 사

전에 예방하는 것을 중점에 두는 기관”이라며 “지금 그런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그것조차 머뭇거리다면, ‘민심을 알긴 하는거야’라는 말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변화와 쇄신을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첫걸음이 특별감찰관이다.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미룬 것을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길”이라고 했다.

김 여사와 관련해 얽힌 여러가지 문제를 특별감찰관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엔 “특별감찰관이 있었으면 지금의 문제가 많이 안생기지 않았을까”라며 “과거의 여러 문제들이 돌아가 보면 조금 더 조심하는 것만으로 불필요한 오해나 격정을 끼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정부여당이 국민의 걱정과 대해서 적극 반응하고 변화와 쇄신의 주체가 되기 위한 태도와 입장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수평적 당정관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는 “민심에 따르기 위해서 여러 내부적인 반성도 있고,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라 구체적인 제도에 있어서 토론이 일어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제가 말씀드렸던 민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국 가게 될 것이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했다.

원의 당대표로서의 고충과 내년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저는 당의 중요 업무들을 통할하는 당 대표 입장에 있다. 최선을 다하겠다. 원내인지 원외인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역할의 문제이고 임무의 문제이고 자세의 문제다. 몸을 던질 자세로 왔고 그러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개인이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고 있다. 몸을 던져서 당, 진영,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보수원로’ 윤여준 만난 이재명… 당정 ‘불통’ 토로

〈전 환경부 장관〉

윤여준 “尹, 지지도 높이는 게 급선무”
후 “대화 없는 것이 제일 답답해”
회동 이후 민생경제 간담회 진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보수 진영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만나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 속 정부·여당의 불통을 부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모처 식당에서 윤 전 장관과 오찬을 했다. 이 대표는 보수 원로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중앙대학교 법대 스승이었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를 만나는 등 외연확장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정쟁으로 얼룩진 원내에서 벗어나 원외에서 진영을 초월한 민생경제를 고리로 중도층에 호소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신속히 여야대표회담을 갖고 민생 회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고 촉구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오찬 회동에 나서며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윤여준 전 장관은 보수 진영 원로이지만, 윤석열 정권의 김건희 여사 의혹 등에 대해선 강하게 비판하며 대통령실의 쇄신을 요구한 바 있다.

윤 전 장관은 공개 발언에서 “저희 같은 사람도 걱정이다. 국제 정세나 국내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하고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국가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이렇게 흔들려서야 곤란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경제상황이 너무 안 좋아졌는데, 거기다가 국제환경이나 빠지면 그게 경제에 또 악영향을 미치고 악

순환”이라고 동의했다.

윤 전 장관은 “우리 항상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지내왔다”며 “민생이 국정 기본인데, 그런 점에서 지금 정부가 그렇게 신뢰를 받는 것 같지 않아서, (이재명) 대표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사실 어르신들 말씀이 많이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윤 전 장관은 “국민적 역량을 다 모아도 쉽게 지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은데, 대통령이 저렇게 국민신뢰도가 낮으니까 국정최고책임자가 저러면 무슨 정책을 펴도 효과가 나지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적 지지도 높이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은데, 배포가 큰 양반이라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고 했다.

또 “야당으로서 할 역할이 제한적이고, 대통령이냐 여당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데, 별로 그렇게

같이 힘 합쳐서 무엇을 해보자는 모습은 별로 안보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사실 어려울 때일수록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세상사라는 것이 길이 없어보여도 이야기를 하다보면 길이 생기지 않나”라고 윤 전 장관의 말의 힘을 실었다. 그는 “제가 여의도 온지 얼마 안됐는데, 제일 답답한 것이 대화가 없다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싸우다가도 다시 화해하고 만나야 한다”며 “싸우더라도 감정적으로 싸우면 안되는데 제가 보기엔 요즘 정치인들이 진짜 서로 감정적 적대감이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 전 장관과 회동 이후엔 소상공인·자영업자 관계자들과 함께 민생경제 간담회를 진행하며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저는 ‘골목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골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며 “지역화폐라는 것도 제가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매우 성공적으로 정착이 됐는데 큰 돈 안들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왜 이렇게 끝까지 거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태홍 기자

尹, ‘4대개혁’ 의지… 개각·인적쇄신 가능성

김건희 여사 문제로 국정운영 동력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교체 거론

오는 11월 임기의 절반을 지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4대 개혁(연금·의료·교육·노동)의 성과를 연내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어 정부 정책에 속도가 날지 관심사다. 윤 대통령의 4대 개혁 드라이브는 김건희 여사 문제로 국정동력이 약화돼 이를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개각 가능성도 거론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면서 “앞으로 두 달, 4대 개혁의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서 핵심 사업들이 연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내달 10일 임기 반환점을 맞는다. 임기 후반기로 들어선 만큼, 정부의 국정과제인 4대 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근로시간 유연제나 정년 연장 등 시행령을 최대한 활용해 성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김건희 여사 문제가 모든 이슈를 잠식하면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개혁 드라이브’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김 여사 문제에 대한 출구전략으로 김 여사의 직접 사과, 서면 사과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여사가 사회복지 봉사활동 이외에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여권 안팎에서는 임기반환점을 계기로 개각이나 인적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출범과 함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임기 초 임명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예진 기자 syj@

국방정보본부 “北, 전선투입 개연성 있어”

“아직까지 정식 투입 정보는 없어
쿠르스크 전장 이동 임박은 사실”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본부는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의 전선 투입에 대한 정보는 없으나, 일부 선발대가 전선에 투입됐을 개연성은 있다고 밝혔다.

이성권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간사는 정보위 비공개 국정감사 회의장 밖에서 이 같이 브리핑했다.

이성권 간사는 “오늘 외신 발표가 있었는데, 북한군이 전선으로 투입됐다는

것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정식 투입 정보는 없다”며 “그러나 (북한군의) 쿠르스크 전장이 이동이 임박한 것은 사실”이라며 국방정보본부의 답변을 전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일부 선발대가 전선에 투입됐을 개연성은 있어 보인다는 것이 공식적 발언”이라고 덧붙였다.

이 간사는 “후방침투 임무를 갖고 있는 부대가 평원 개활지인 쿠르스크 전투에 있어서 제한이 있을 것이고 (러-우 전쟁이) 드론전이라는 형태로 전쟁하는데 북한군은 드론이 보급돼 있지 않고, 훈련을 못해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GREEN *Sweet* WINTER

강원 다래의 상큼 달콤함을 담은 겨울의 한 잔



다래 레드 스위트
5.9



다래 그린 스노우
ICE ONLY 6.9



강원특별자치도

우리나라 토종 과수 다래 농가와 함께합니다.

지방금융, 2024년 신흥국 진출 잔걸음... 소액금융 공급 주력

BNK금융, 中·인도 등 9개국 진출
iM뱅크, 베트남·中서 영업점 운영

아시아 신흥국, 높은 성장률에도
금융인프라 미흡에 이익 가능성
유학생 등 外人고객 영업도 확대

지방금융지주가 아시아 신흥국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 각 지방금융은 국내 금융기관의 진출이 잦았던 동남아시아에 이어 중앙아시아에서도 현지 금융 환경에 특화된 ‘소액금융’ 공급에 주력하고, 국내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 고객을 공략하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3대 지방금융(BNK·DGB·JB)은 지방 소멸과 영업이익 축소에 대응하기 위해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 중인 아시아 신흥국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3대 지방금융이 진출한 아시아 국가는 10개국에 달한다.

BNK금융은 지방금융 가운데 가장 많은 9개국에 진출했다. 특히 국내 금융기관의 진출이 미진했던 중앙아시아 지역 진출에도 힘쓰고 있다.

부산은행은 중국·베트남에서 영업점을 운영 중이며, 인도,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현지사무소를 설치해 시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BNK캐피탈은 미얀마·캄보



DGB금융의 라오스 현지 소액금융 전문 법인인 ‘DGB DLMC’의 영업점 모습. 소액금융(마이크로파이낸스)은 신흥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금융 서비스다. /DGB금융

디아·라오스·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현지에서 소액금융(마이크로 파이낸스) 자회사를 운영 중에 있다.

DGB금융은 두 번째로 많은 6개국에 진출했다. 이 중 5곳은 인도차이나 주변 국가로, 현지 법인을 통한 소액금융 공급에 집중하고 있다.

iM뱅크는 베트남과 중국에서 영업점을 운영 중이며, 캄보디아에서는 현지 은행을 자회사로 보유했다. 이어 DGB캐피탈은 라오스·미얀마·캄보디아에서 소액금융 자회사를 운영 중이다.

올해 초에는 DGB금융지주가 싱가포르에서 자산운용사를 신규 출범했다.

JB금융의 진출국은 3개국으로 가장 적지만, 실적 면에서는 호실적을 기록 중이다.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은 미얀마와 베트남에 각각 현지 은행·자산운용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고, JB우리캐피탈은 미얀마에서 소액대출 법인을 운영 중이다. 특히 전북은행의 해외 자회사는 지난해 전북은행의 전체 이익의 18%에 달하는 340억원을 벌어들였다.

각 지방은행의 해외 영업점들은 현지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금융 취급에 주력하고 있지만, 현지 법인들은 신흥국 금융환경에 특화된 금융상품인 ‘소액금융’ 취급에 주안점을 뒀다.

소액금융은 빈곤층에 생활비나 사업자금 등 소액대출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으로, 신흥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소액금융 법인은 은행보다 신규 인가를 받기 쉬우며, 취급 금리가 높아 마진율도 높다.

한 지방금융 관계자는 “아시아 신흥국들은 높은 성장률에도 금융 인프라가 불충분해 가능성이 큰 시장”이라며 “특히 신흥국들은 경제 성장률이 높은 만큼 금리도 국내보다 높은 편이고, 이에 진출 시 기대 가능한 이익도 크다”라고 설명했다.

각 지방금융은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등 아시아 신흥국 출신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도 영업 확대에 힘쓰고 있다.

BNK금융의 부산은행은 지난 8월 외국인 화상 상담 언어를 7개(영어·일본어·중국어·베트남어·우즈베크어·네팔어·벵골어)로 늘렸고, 일부 지점에 외국인 유학생 전용 창구를 설치했다. 경남은행도 이달 외국인 근로자 전용 대출을 출시했고, 창원·울산 내 일부 지점에서 외국인 근로자 전용 창구를 설치했다.

DGB금융의 iM뱅크는 지난 8월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비대면 해외 송금 서비스를 시작했다. 또한 대구·경북 지역 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금융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JB금융의 전북은행은 지난달 외국인 특화 상담센터인 ‘브라보 코리아(BRAVO KOREA)’를 오픈했고, 전용 모바일 앱 구축을 위해 외국인 직원 채용을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

다른 한 지방금융 관계자는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들의 금융 수요가 늘고 있다”라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각 지방은행은 외국인 대상 금융을 적극 확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BNK금융, 3분기 실적

누적 순익 7051억
건전성 관리 박차

BNK금융그룹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여파 등으로 인한 대손 비용 증가에도 이자 이익 및 비이자 이익 증가에 힘입어 3분기 그룹 연결 당기순이익(지배기업지분)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6억원(6.1%) 늘어난 7051억원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은행 부문에서는 부산은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3억원 역성장했지만, 경남은행이 515억원의 성장을 기록해 전년보다 432억원 성장한 6755억원의 순이익을 시현했다.

비은행 부문에서는 유가증권 관련 이익 증가에도 부실자산 증가에 따른 충당금 전입액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99억원 감소한 124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BNK투자증권은 전년동기 대비 순이익이 줄었지만, 같은 기간 BNK캐피탈(16억원), 저축은행(17억원), 자산운용(9억원) 등은 증가했다.

아울러 그룹 자산건전성 지표인 고정이자여신(NPL) 비율은 1.18%로 직전분기 대비 4bp(1bp=0.01%포인트) 하락해 소폭 개선됐다. 같은기간 연체율은 0.98%로 4bp 소폭 상승했다. 이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 변경 및 경기둔화에 따른 부실 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BNK금융은 향후 보다 적극적인 건전성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어 그룹 자본적정성 지표인 보통주 자본비율은 적극적인 위험가중자산(RWA) 관리에 따라 전분기대비 15bp 상승한 12.31%로 개선됐다. /안승진 기자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이천역’ 선착순 계약

역세권에 대단지 아파트 조성
전용 60~136㎡ 314가구 일반분양

현대건설은 경기도 이천에서 선보인 ‘힐스테이트 이천역’을 선착순 계약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역세권 입지를 갖춘 메타 선호도 높은 대단지 아파트로 조성돼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힐스테이트 이천역은 경기도 이천시 증일동 일원에 총 2개 단지, 지하 4층~지상 29층, 15개동 규모다. 전용 60~136㎡, 총 1822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314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일반분양 물량은 ▲60㎡ 29가구 ▲60㎡S 34가구 ▲74㎡ 91가구 ▲84㎡



‘힐스테이트 이천역’ 투시도. /현대건설

76가구 ▲84㎡S 76가구 ▲126㎡P 3가구 ▲127㎡P 1가구 ▲136㎡P 4가구다. 전 가구가 중·소형과 펜트하우스 타입

으로 구성되며, 수요자들의 니즈에 맞춰 전용 60㎡와 74㎡, 84㎡ 같은 선택 타입을 반영했다.

계약 조건은 계약금 5%와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를 적용해 수분양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췄다. 여기에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며, 발코니 확장도 무상으로 지원한다. 특히, 향후 분양조건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계약자들에게 같은 조건으로 유리하게 소급 적용하는 제도인 계약조건 안심보장제를 도입해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

단지는 경강선 이천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경강선은 분당·판교에서 여주를 오가는 수도권 남부 철도교통의 핵심 노선이다. 이천역에서 이매역까지 33분, 판교역까지는 38분이면 도착 가능하기 때문에 오피스가 밀집한 판교 및 분당으로의 출퇴근이 용이하다.

/안상미 기자 smahn1@

DL이앤씨 ‘아크로’, 브랜드 선호도 4년 연속 1위

‘하이엔드 아파트’ 소비자 설문
10~50대 1.7만명 중 42% 선택

DL이앤씨는 하이엔드 아파트 브랜드인 ‘아크로(ACRO)’가 소비자 브랜드 선호도 조사에서 4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내 최대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전국 10~50대 남녀 1만 671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42.2%가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로 아크로를 꼽았다. 1위를 차지한 아크로와 2위 브랜드 간의 선호도 격차는 두 배에 달했다.

아크로는 다방이 조사를 시작한 이래 4회 연속 하이엔드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이번 설문 조사에서는 모든 성별, 전 연령에서 선호도 1위를 독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응답자의 경우 각각 42%가 아크로를 선택했다. 연령별로는 ▲20대 42% ▲30대 43% ▲40대 42% ▲50대 39% 등으로 집계됐다.

DL이앤씨의 아크로는 ‘아크로 리버파크’를 시작으로 ‘아크로 리버뷰’,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등 서울 핵심 요지와 한강변에 상징적인 주거 공간을 선보이며 국내 대표 하이엔드 아파트 브

랜드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특히 아크로만의 다양한 특화설계와 디자인을 통해 독보적인 주거 가치를 선사하고 있다.

다방 관계자는 “하이엔드 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지속하는 가운데 2030세대 등 젊은 층에서도 고급 단지에 대한 니즈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특히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디자인, 인테리어를 중시하는 고객들이 많은 만큼 독창적이고 차별화한 하이엔드 아파트를 찾는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DL이앤씨는 경기 안양시 동안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전경. /DL이앤씨

구 호계동 일원에 조성 중인 ‘아크로 베스티뉴’를 곧 분양할 예정이다. 이번 분양을 통해 아크로는 경기도 지역 내 하이엔드 주거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안상미 기자

우리은행

가계대출 중도상환
해약금 한시적 감면

우리은행이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시 부과되는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 만기일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이다. 대출 유형에 따라 ▲고정금리는 0.7~1.4% ▲변동금리는 0.6~1.2% 요율이 적용되나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된다.

고객이 영업점 방문 또는 우리WON뱅킹 등 비대면채널에서 대출 상환시 자동으로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되어 비용 부담 없이 갚을 수 있다. 11월 이전부터 보유한 신용, 부동산, 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이 감면 대상이지만, 기금대출과 보금자리론, 유동화모기지론 등 유동화대출 등은 제외된다.

우리은행은 면제혜택을 먼저 11월 한달 동안 적용하고,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승용 기자 lsy2665@

美 칩스법 ‘태양광’ 포함… 국내기업, 추가 세액공제 가능성

美 재무부 칩스법 적용 규칙 개정
한화솔루션 등 수천억대 혜택 기대
“IRA 다르게 적용될지 지켜봐야”

미국이 반도체 산업을 비롯해 태양광 산업까지 지원 대상 확대에 나서며 국내 기업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재무부는 칩스법을 적용하기 위한 최종 규칙에 태양광 모듈용 웨이퍼 생산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했다. 웨이퍼는 얇은 판으로 반도체와 태양광 모듈에 폴리실리콘을 원료로 한 웨이퍼가 들어간다. 이 때문에 미 재무부는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비슷하게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법은 오는 12월 23일부터 발효된다.

칩스법은 지난 2022년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내에 반도체 제조 장비와 시설



한화큐셀이 완공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 소재 태양광 발전소(50MW)

/한화솔루션

투자 시 보조금과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규정으로 반도체 제조 산업을 미국으로 돌리고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또한 글로벌 태양광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산을 견제하고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앞서 미국은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지난 8월부터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해 적용한 바 있다. 말레이시아·캄보디아·태국·베트남에도 상계관세를 매기며 중국산 우회수입을 강력하게 제재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이에 미·중 갈등이 태양광까지 확대

되며 국내 태양광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태양광 제품들은 지난 2022년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 업계는 이번 개정법을 통해 추가 혜택을 받으면 공제 수준이 25%까지 확대돼 수천억원에 달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미국 조지아주 카터스빌에 대규모 태양광 패널 공장을 건설 중인 한화솔루션은 정책 변화에 힘 입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신규 공장의 상당 부분이 잉곳 및 웨이퍼 생산에 투입되기에 이번 세액공제 혜택을 통해 생산 비용 절감을 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카터스빌 공장은 연간 3.3GW(기가와트)의 태양광 모듈 제조능력을 갖출 예정이다. 지난 4월부터 모듈 상업 생산을 시작했으며 내년부터는 동일한 규모

의 잉곳·웨이퍼·셀 생산에 착수할 방침이다.

한화솔루션 또한 칩스법과 관련해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솔루션은 30일 3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을 열고 “칩스법과 관련해 태양광 웨이퍼가 반도체 범주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있다”며 “미국 태양광 웨이퍼에 이미 투자한 사항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화솔루션은 현재도 IRA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어 이와 다르게 적용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내에서 태양광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최근 조인트벤처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OCI홀딩스도 칩스법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포스코홀딩스, 3분기 실적 선방… 매출 18조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수익성 견조
인도 등 철강시장 투자 계획 밝혀

포스코홀딩스가 글로벌 경기침체장기화에 따른 수요침체기에도 미래성장산업 선점을 위한 투자에 속도를 높인다.

포스코홀딩스는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 18조 3210억원, 영업이익 7430억원, 순이익 4970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철강 및 이차전지소재 시장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나, 수익성 방어에 주력하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각각 1%, 1.2% 소폭 감소한 유사 수준을 유지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3.4%, 37.9% 감소했다.

철강부문에서는 포스코가 영업이익 4380억원을 기록하며 전분기 대비 200억원의 수익이 개선되었으나, 중국 철강

수요 부진 지속 및 가격하락 영향으로 중국 법인 중심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감소했다.

인프라부문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발전 사업 이익이 확대되었고 포스코이앤씨의 비핵심 자산 매각 등 손익만회 활동 등으로 이익이 개선되며 전분기 대비 200억원이 증가한 449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차전지소재부문은 포스코퓨처엠이 하이니켈 양극재 제품 판매 호조에 힘입어 매출은 소폭 상승했으나 양극재 재고 평가손실 및 음극재 판매 감소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이날 포스코홀딩스는 미래 성장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 계획도 발표했다.

철강부문에서는 인도 최대 철강사인 JSW그룹과 합작해 인도에 연산 500만톤 규모의 일관제철소를 건설하는 프로

젝트를 포함한 철강 상공정 중심의 투자계획을 소개했다. 인도 상공정 프로젝트를 통해 포스코그룹은 이미 운영 중인 하공정과 시너지를 모색하고 무역장벽 강화 기조 속 현지 공급망을 강화해 고성장하는 인도의 철강 시장을 선점하고 통상 리스크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칠레 신규 리튬광산 입찰 참여를 진행중이며 탄자니아 흑연 프로젝트 지분참여를 통해 우량자산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구조개편 대상인 저수익 사업 및 비핵심 자산을 기존 120개에서 125개로 늘렸다”며 “이 중 2024년 3분기까지 총 21개 구조조정을 완료해 6254억원에 달하는 현금유입 효과를 거두는 등 자산 효율성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LG화학, 자동차용 접착제 시장 본격 진출

방열 접착제 180개 이상 특허 보유
“모빌리티 소재 사업 적극 육성할 것”

LG화학이 자동차용 접착제 사업을 적극 육성하여 모빌리티 시장을 공략한다.

LG화학은 북미 전기차 업체향으로 방열 접착제 공급을 시작으로 자동차용 접착제 시장을 확대하고 수천억 단위 사업으로 육성한다고 30일 밝혔다.

방열 접착제는 배터리 셀을 모듈·팩에 접합할 때 사용되며 높은 열전도성, 전기 절연성을 갖춘 제품으로 열관리와 성능 유지에 필수적이다.

LG화학은 방열 접착제 18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 기술장벽을 구축하고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최근에는 방열 성능에 더하여 고객의 비용 절감과 경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



LG화학 자동차 차체용 접착제

/LG화학

을 개발하고 있다.

LG화학은 지난 2018년 미국의 접착제 전문기업 유니실(Uniseal)을 인수해 자동차 접착제 사업을 본격화했다. 유니실은 북미 내 자동차 차체용 접착제 1위 기업으로 최근에는 유해화학물질이 없고 탄소배출 저감이 가능한 신

제품 개발에도 성공했다.

LG화학은 파워트레인용으로 배터리 방열 접착제 외에도 모터, 인버터·컨버터용에 적용되는 폴리이미드 바니쉬, 실버 나노페이스트 등 다양한 접착 소재를 국내외 업체와 긴밀히 개발 중이며 카메라 센서, 헤드램프, 차량용 디스플레이와 같은 기타 전장 부품 분야로 사업 확대하고 있다.

자동차용 접착제 시장은 전동화·자율주행화에 따른 전장 부품 수요 확대 및 차체 경량화·친환경 소재의 수요 증가로 2024년 9조원에서 2030년 16조원 규모로 고성장이 예상된다.

LG화학 신화학 부회장은 “디스플레이·반도체 등 전자 소재 분야에서 축적한 소재 합성, 물질 설계 및 제조 공정 등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영역인 모빌리티 소재 사업을 적극 육성해 시장 지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LG이노텍, ‘고성능 친환경 마그넷’ 개발

13.8kG 성능… 세계 최고수준 자력

LG이노텍이 중(重) 희토류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세계 최고 수준의 자력을 갖춘 ‘고성능 친환경 마그넷(magnet)’ 개발에 성공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제품은 테르븀(Tb), 디스프로슘(Dy) 같은 고가의 중 희토류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LG이노텍은 한국재료연구원과 협력해 업계 최초로 중 희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다원계 합금 물질을 개발했다. 채굴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희토류를 쓰지 않고도 제품 개발에 성공한 것이다.

이 제품은 업계 최고 수준인 13.8kG(킬로가우스·자석세기단위)의 성능을 내며, 최대 180℃ 고온 환경에서 내구성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회사의 글로벌 고객사들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전기차에 장착되던 기존 마그넷을 ‘고성능 친환경 마그넷’으로 대체하면, 전기차 1대당 45kg의 환경오염 물질을 줄일 수 있다. 또 중희토류 1



친환경 마그넷 제품.

/LG이노텍

kg를 채굴하는 데 생기는 이산화탄소(CO₂) 0.5t과 산성폐수 및 방사능물질 450kg도 줄이게 된다.

LG이노텍은 이 제품이 공급망과 원재료 비용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LG이노텍은 스마트폰 액추에이터 등 자사 제품에 ‘고성능 친환경 마그넷’을 적용해 제품 경쟁력을 한층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 완성차 및 차량부품 기업, 스마트폰 제조 기업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적극 펼쳐, 가전·로봇 등 적용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삼성전자, ‘크립토큰’ 美 NIST 보안인증 (자체 개발 암호 모듈)

TV·모니터 등 주요제품 보안 활용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암호 모듈 ‘크립토큰’이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로부터 FIPS 140-3 인증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크립토큰은 데이터가 전송되거나 저장될 때 암호화 및 복호화를 위해 사용되며, 소프트웨어라이브러리 형태로 구현된다. FIPS 140-3 인증은 미국 NIST가 발행하고 전 세계 10개국에서 상호인정되는 대표적인 암호 모듈 국제 인증이다.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크립토큰을 자사 운영체제인 타이젠 운영체제(O

S)에 적용해 TV·모니터·사이니지 등 주요 제품들의 보안 강화에 활용할 예정이다.

타이젠 OS에 크립토큰을 탑재하면 기기에 로그인된 삼성 계정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암호화하고 사물인터넷(IoT) 플랫폼 스마트싱스의 인증 정보도 암호화가 가능해 외부 해킹 위협으로부터 보호한다.

김용재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김용재 부사장은 “타이젠 OS 기반 제품들에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신뢰성을 지속 확보하여 고객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시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민 기자 hyem@

넷플 대항, 거대 토종 OTT 나오나 자본력·콘텐츠 격차 여전히 ‘난관’

티빙-웨이브, 합병 초읽기

지상파 3사 합의... KT 동의 관련
양사 모두 적자, 현금규모 아쉬워

넷플릭스-네이버, 멤버십 혜택 확장
사용자층 확대 위한 협력 본격화

넷플릭스를 대항할 국내 거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탄생이 임박했다.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을 두고 웨이브의 주요 주주인 지상파 3사가 모두 합의한 것. 다만 양사의 합병이 성사된다해도 넷플릭스를 뛰어넘기란 역부족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양사 모두 적자인 상황에서 합병을 하더라도 넷플릭스의 현금 규모를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특히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이 9개월 넘게 지체되는 사이 넷플릭스는 국내 거대 기업 네이버와 손잡고 몸집을 더욱 키우고 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웨이브의 주요 주주인 지상파 3사 KBS·MBC·SBS가 최근 티빙과 합병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다만 티빙 측 주요 주주인 KT가 아직 합병안에 찬성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 2022년 티빙이 KT의 OTT서비스 시즌을 흡수 합병하면서 KT 자회사 스튜디오지니는 티빙 지분 13.5%를 갖고 있다.

일각에서는 KT가 합병에 찬성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데는 자사 IPTV(인터넷TV) 사업이 받을 영향을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KT의 올해 2·4분기 IPTV 가입자 수는 942만3000명으로 1년 전(947만명)보다 다소 감소했다.

KT가 합병안에 찬성할 경우 티빙과 웨이브는 곧바로 본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본 계약까지 마무리되면 넷플릭스를 대항할 국내 최대 OTT가 탄생하게



되는 셈. 이번 합병은 국내 OTT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양사는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합병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합병만으로는 넷플릭스를 뛰어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양사 모두 적자인 상태에서 합병을 하더라도 넷플릭스의 현금 규모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티빙과 웨이브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는 787만명, 427만명이다. 단순 합산으로 두 회사의 이용자 수를 합하면 1214만명으로 넷플릭스(1167만명)를 겨우 넘어서는 상황이다.

특히 티빙과 웨이브는 지난해 각각 1420억원, 79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특히 웨이브는 주요 토종 OTT 가운데 유일하게 전년대비 이용자가 감소했다. 웨이브의 지난 달 이용자 수(MAU)는 432만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1년 전 500만명을 훌쩍 넘었지만 현재 이용자수는 100만명 가량 빠진 셈이다.

반면 넷플릭스는 양사의 협상이 지체되는 사이 막대한 자본을 기반으로 '1위 굳히기'에 돌입했다. 지난해 기준 넷플릭스가 보유한 현금은 9조8200억

원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는 먼저 국내 최대 기업인 네이버와 손잡고 몸집을 확대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회원 대상으로 넷플릭스 이용권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네이버가 국내 기업 멤버십에 이용권을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밖에도 넷플릭스는 국내 OTT 대비 70배 이상의 비용을 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며 연일 흥행작을 배출하고 있다.

최근 흥행을 거둔 오리지널 예능 콘텐츠 '흑백오리사'는 공개되자마자 인기 순위 1위를 차지했으며 글로벌 TOP 10 TV(비영어)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지난 9월 16일부터 22일까지 무려 380만 시청수를 기록한 바 있다.

이에 당장 양사가 합병된다고 해도, 넷플릭스를 뛰어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양사의 합병 시 넷플릭스의 이용자수를 턱밑까지 추격하게 된다는 점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편, 티빙과 웨이브의 본 계약까지 마무리되면 합병 법인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입결합심사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내로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경북 문경에 ‘버추얼 스튜디오’ 짓는다

CJ올리브넷, 종합영상 제작단지 구축

CJ올리브네트웍스가 경상북도 문경시에 국내 최대 규모 공공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를 구축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CJ올리브네트웍스는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에서 발주한 120억 원 규모의 '메타버스 디지털 미디어 혁신허브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 이에 CJ올리브네트웍스는 경상북도 문경시에 VP 스튜디오를 구축해 종합영상 제작 단지를 구현하기로 했다.

문경 VP 스튜디오는 유희부지인 (구)쌍용양회 문경공장 부지 내에 설립된 문경실내촬영 스튜디오 내에 구축된다. 실내 면적은 1662㎡이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성공적인 VP 스튜디오 구축을 위해 약 5천만 LED 픽셀의 스튜디오 공간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 인프라를 배치한다. 또 최적의 촬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LED 월(Wall), 리얼타임(Real time) 3D 엔진 뿐 아니라 제작 편의 시설과 보안 시스템 등 현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모두 포함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주영 CJ올리브네트웍스 DX사업 2본부장은 "공공 최대 규모의 문경시 VP 스튜디오에는 다양한 기술들을 접목해 경북지역의 로케이션 촬영 환경 혁신은 물론 미디어 산업의 혁신을 이끌 거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

클라우드·물류 사업 덕, 3분기 실적 회복세

삼성SDS, 매출 3.5조·영업익 2528억

삼성SDS가 30일 3분기 매출액 3조 5697억 원, 영업이익 2528억 원의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

직전 분기 대비 매출은 6.0% 영업이익은 14.4%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대비해서는 매출 11.3%, 영업이익 31.0% 증가했다.

이번 3분기는 클라우드 사업과 물류 사업 모두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며 실적 개선이 나타났다.

IT서비스 부문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 증가한 1조 6296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클라우드 사업 매출은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35.3% 증가한 6370억 원을 달성했다.

클라우드 사업 중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SCP) 기반 CSP 사업은 고성능 컴퓨팅(HPC), 생성형 AI를 위한 구독형 GPU 서비스(GPUaaS) 확대로 꾸준히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MSP사업은 기업 고객을 위한 생성형 AI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주하는 성과를 냈다.



삼성 SDS타워의 모습.

/삼성SDS

물류 사업 부문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2% 증가한 1조 9401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능형 공급망 관리의 한 축으로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 물류 플랫폼 셀로스퀘어(Cello Square)는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한 3203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가입 고객도 1만 7900개사를 돌파했다.

물류 사업은 해상, 항공, 육상 물류별 전략을 세분화하여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SK네트웍스, ‘선웨이’와 AI 중심 협력 강화

글로벌 AI 협력과 동반성장 추진
협업 통한 말레이·제3국 진출 검토

SK네트웍스가 말레이시아의 부동산·건설·의료·호텔 분야 유력 그룹인 선웨이(Sunway)와 손잡고 사업 전반적인 협력 강화에 나선다.

SK네트웍스는 말레이시아 선웨이 그룹과 양사 및 자회사의 AI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공고한 협력 관계 속에 동반성장을 추진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974년 설립된 선웨이 그룹은 말레이시아의 20대 그룹 중 하나로 전 세계 50개국에서 13개 부문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시가총액은 10조원을 상회한다. 특히 건설과 부동산 부문의 사업 모델로 명성이 높다.

SK매직이 말레이시아 법인을 통해 현지 사업을 수행하며 선웨이 그룹과 연을 맺었으며, AI 등 관심 사업 및 향후 전략 측면에서 SK네트웍스와 시너지를



지난 22일 열린 업무협약 기념식에서 (왼쪽부터) 최성환 SK네트웍스 사업총괄 사장, 예반치아 선웨이 디지털·전략투자 CEO, 이호정 SK네트웍스 대표이사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SK네트웍스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점에 착안해 이번 협력까지 이어지게 됐다.

양사는 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AI 영역을 중심으로 협업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제 3국에 함께 진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SK매직이 개발 추진 중인 AI 혁신제품에 대

한 사업 협력이 이뤄지고, 미국 현지의 AI 전문 조직 퍼닉스랩의 기술을 활용해 선웨이 그룹 내 AI 시스템을 구축·개발하는 등 혁신적인 사업모델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말레이시아에 SK네트웍스의 자회사인 SK매직과 선웨이의 합작법인(Joint Venture)을 설립하고, SK네트웍스와 선웨이 간 지분 교환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협업 모델을 검토키로 했다.

SK네트웍스는 이번 양사 간 합의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향후 과정을 적극 지원해 보유 사업의 원활한 글로벌 확장 및 협력을 도모하는 동시에, AI 기반 사업 지주회사로서의 가치 향상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SK네트웍스 관계자는 "AI 관련 분야를 핵심으로 선웨이와 구체적인 협업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워킹 그룹을 운영하고, 말레이시아 현지 사업 확장을 비롯한 가시적인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한국타이어

고성능 전기 타바스칸
‘아이온 에보 SUV’ 공급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고성능 전기차 타이어 기술력을 앞세워 폭스바겐그룹의 고성능 브랜드의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한다. 한국타이어는 폭스바겐그룹 산하 고성능 차량 브랜드 ‘쿠퍼라’의 고성능 전기 SUV ‘타바스칸’에 전기차 전용 퍼포먼스 타이어 ‘아이온 에보 SUV(iON evo SUV)’를 신차용 타이어로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아이온 에보 SUV는 한국타이어와 쿠퍼라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고성능 전기 SUV의 역동적인 퍼포먼스에 최적화된 성능을 발휘하도록 개발됐다. 뛰어난 접지력과 핸들링, 제동력 등 다양한 요소들이 균형 잡힌 성능을 발휘하는 것이 특징이다. /양성운 기자 ysw@

LG전자

AI·HVAC 기술 결합
‘스마트코티지’ 출시

LG전자 인공지능(AI) 가전과 HVAC(냉난방공조) 기술을 집약한 ‘LG 스마트코티지’를 본격 출시했다.

LG전자는 30일 스마트코티지 공식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도시 근교나 지방에 세컨드 하우스를 계획 중인 일반 고객(B2C)과 기업·단체고객(B2B)에게 본격 판매한다.

스마트코티지 내부에는 오브제컬렉션 위시타워 컴팩트, 식기세척기, 인덕션, 광파오븐, 정수기 등 LG전자의 공간 맞춤형 프리미엄 가전이 설치된다. 스마트 도어락, CCTV, 전동 블라인드 등 다양한 IoT 기기들도 설치돼 LG 씬큐 앱으로 가전 및 IoT 기기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다.

/구남영 기자



MUSEUM L

다양한 장르의 특별한 전시 **뮤지엄엘**

GRAND OPEN

오픈 기념 할인 & 이벤트 진행중

MONA LISA

모나리자 이머시브

2024.07.26 - 2025.07.25 뮤지엄엘 1관

ALBERTINA MUSEUM COLLECTION

ALEX KATZ

알렉스카츠

2024.07.26 - 2024.11.17 뮤지엄엘 2관

위대한 농구선수 75인 전

2024.07.26 - 2024.12.15 뮤지엄엘 3관



@museum.l

카메라앱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오픈특가,
카페할인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뮤지엄엘 인스타그램> 링크로 연결됩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33 상상플랫폼 1층

IBK투자證, IPO 주관건수 부진… “中企 시너지 확대할 것”

지난 3월, 양적확대 추구 목표 밝히
올해 IPO 주관 총 2건… 전년대 절반
당국 규제강화·국내증시 부진 영향
코넥스 시장 성과는 ‘여전’… 업계1위
분위기 전환 위해 시장공략 나설 것

IBK투자증권은 올해 기업공개(IPO) 평가 도약을 목표로 연초부터 시장 공략에 나섰으나 지금까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IBK투자증권의 서정학 대표는 지난 3월 올해 상장 청구 건수 기준 코스닥 9건, 코넥스 7건 등 총 16건을 목표로 양적 확대를 추구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밝혔다. 그러나 올들어 IPO 주관 건수가 총 2건으로, 2021년(4건), 2022년(4건), 2023년



IBK투자증권 본사.

/IBK투자증권

(5건)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더구나 상장을 추진했던 기업의 IPO도 무산되기도 했다. 대표 주관 계약을 맺은 원포유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자진 철회했다.

IBK투자증권 관계자는 “올해 IPO 주관 건수가 부진했던 것은 당국의 규제 강화와 국내증시의 부진이 영향을 미쳤다”면서도 “올해 공모가 기준으로 보면 480억원을 기록해 작년(234억원)보다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IBK투자증권의 강점이던 스펙(SPA) 합병 역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라이콤, 신시웨이, 벨록 등 3건을 주관했으나 올해 IBKS제19호스팩과 합병 상장한 에스피소프트의 1건을 주관하는 데 그쳤다. 이와 달리 경쟁사인 하나증권은 올해 3건을 기록, 지난해(2건)에 비해 증가세를 보였다. 업계

에서는 IBK투자증권이 스펙 합병 기업의 본질에 맞는 IR 포인트를 찾아내는 점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은 PR 필요성 때문에 직상장을 선호하는 반면, 중소기업들은 미래 가치를 반영한 밸류에이션(기업가치)과 지분 분산 요건이 없어 스펙 상장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오히려 지분율이 낮거나 높은 기업가치를 원하는 기업들은 스펙 상장에 주목한다. 이에 따라 스펙 합병에 유리한 업종과 기업을 파악하고, 합병을 가능하게 하는 프라이싱 능력이 증권사의 핵심 역량으로 꼽힌다”고 전했다.

다만 IBK투자증권은 코넥스시장에 선 여전히 성과를 내고 있다. IBK투자증권 관계자는 “지난 2013년 코넥스 시장 개장 이후 현재까지 누적상장 주관

건수 총 58건으로 업계 1위”라며 “숙련된 실무진이 다양한 상장 사례를 기반으로 질 높은 공시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데다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할 수 있는 잠재력 높은 중소·벤처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IBK투자증권은 분위기 전환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IPO 시장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IBK투자증권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들의 도약 단계부터 성장·성숙기에 걸쳐 동반성장을 이루고 회사 비전인 ‘국민과 중소기업에 필요한 참 좋은 증권사’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며 “IBK금융그룹·타금융그룹 및 전 중소기업과의 시너지 확대를 통해 포지셔닝을 강화하면서 2025년까지 우량 중소기업 상장 건수를 대폭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프로야구·러닝 등 열풍… 증권사 ‘스포츠 마케팅’ 탑승

현대차증권, ‘기아타이거즈’ 후원
MZ세대 유입 등에 마케팅 효과 ‘톡톡’
유진투자증권, 러닝루 클래스 론칭

2030세대를 중심으로 스포츠 열풍이 불면서 증권사들도 브랜드 노출 효과를 누리기 위한 ‘스포츠 마케팅’이 한창이다. 특히 프로야구의 인기가 급상승하자 메인 스폰서를 맡고 있는 증권사들은 관련 이벤트를 적극 진행하는 모습이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프로야구가 천만 관객을 돌파하는 등 열풍이 불면서 스폰서로 나섰던 증권사들의 마케팅 효과도 배가하고 있다. 지난 28일 현대차증권이 스폰서로 후원하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는 ‘2024 시즌 KBO 한국시리즈’ 5차전에서 7대5로 역전승을 거두며 우승했다. 당초부터 유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됐던 만큼 현대차증권도 기아타이거즈를 활용한 최종 순



KIA 타이거즈 선수단이 28일 광주 북구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4 KBO 포스트시즌 한국시리즈 우승 기념식에서 이범호 감독을 행가래하고 있다. /뉴시스

위 예측 이벤트, 승수 연계 이벤트 등의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진행했다. 승수 연계 이벤트의 경우에는 현대차증권 고객인 일반 기아 타이거즈 팬들도 참여할 수 있어 호응도가 높았다. 경품은 주로 현대차증권 상품권이었으며, 사용을 위해서는 현대차증권의 계좌 개설이 필수다.

올해 프로야구는 관객 수 약 1088만 명을 넘기면서 전례 없는 흥행을 기록했다. 특히 MZ세대의 유입이 늘어나자 일반 기업들을 포함해 증권사들도 야구 팬을 유치하기 위한 작업이 활발하다. 키움증권은 키움 히어로즈의 네이밍 스폰서를 맡고 있으며, 키움금융그룹 전체가 야구단을 후원한다. 삼성 라이온

즈 역시 계열사 후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삼성증권을 비롯해 삼성생명, 삼성카드, 삼성화재 등을 모두 스폰서로 두고 있다. 이외에도 대신증권이 KT위즈의 스폰서를 담당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확실히 효과가 있다. 특히 가을 야구는 공중파에서도 방영되는데 구장에 직접 오지 않는 어르신 세대까지 시청하기 때문에 구단의 성적이 좋다면 TV에 해당 증권사 이름이 계속 노출될 수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젊은 층, 특히 여성들의 야구 유입이 늘어나면서 굉장한 마케팅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 역시 야구 후원을 통해 브랜드 노출 효과를 본 증권사 중 하나다. NH투자증권이 메인 스폰서로 후원한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는 이번 시즌 2049 시청률 동시간대 13주 연속 1위를 기록하는 등 연일 화제를 모았다. N

H투자증권은 이를 활용해 최강야구팀의 승리 시 100만원, 홈런 시 200만원 등 순차적으로 적립해 주는 ‘주식 모으기’ 이벤트를 진행하며 관련 마케팅을 실시했다. 해당 이벤트 역시 NH투자증권의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나무증권’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밖에도 젊은 세대를 필두로 스포츠 활동이 유행을 타면서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마케팅이 이뤄지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지난 5월 달리기 동호회인 러닝루가 ‘2030세대’에게 인기가 높다는 점을 이용해 ‘유진러닝루’ 클래스를 론칭했다. 유진투자증권 고객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클래스다. 상반기에는 129명이 참여했으며, 지난 8월에도 회차별로 30명씩 4차례 진행했다.

하나증권 역시 2022년에 대한테니스협회와 메인 스폰서 후원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에는 ‘테니스 페스티벌’, 올해는 ‘2024 테니스 챔피언십’을 개최하면서 고객 소통과 스포츠 산업 발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신하은 기자 godhe@

금감원, 글로벌 금융회사 사칭 투자금 모집 경보

멕시코 회사채 투자 권유 업체 적발

A씨는 올해 10월 우연히 경제 관련 유튜브 채널에서 고수익 해외 채권 투자 추천 영상을 시청하고 N업체를 알게 됐다. A씨는 해당 영상의 조회수가 100만회를 넘었고 긍정적 댓글이 많았고 해당 영상뿐 아니라 다른 채테크 영상도 업로드돼 있어 사기를 의심하지 못했다. 해당 영상 댓글에 포함된 링크를 통해 N업체 홈페이지를 들여다 보니 다양한 채권 상품이 판매되고 있었다. A씨는 이중 수익률이 제일 높은 멕시코 채권이 실제 해외 정유회사인 것을 확인한 후 홈페이지의 고객센터를 통해 연락했다. ‘N업체 명의 통장’으로 입금을 안내를 받게된 A씨는 의심을 거두고 투자금을 이체했다. 이후 급전이 필요해 투자 후 7일 이내 환급 신청 시 수수료 없이 반한해 준다는 설명에 따라 A씨는 해지 요청을 했고 3일 뒤 입금된다는 메일·문자를 받았으나, 결국 투자금은 입금

되지 않았다. 앞서 본 긍정적인 댓글들은 ‘조작 댓글’이었고 채테크 영상들은 다른 유튜브의 영상을 ‘도용’한 것이었다.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금융회사를 사칭해 멕시코 회사채 투자로 불법 투자금을 모집하는 사례를 소개하고, 이와 관련한 소비자 경보를 내렸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미국 금융회사를 사칭하고 홈페이지 정보 등을 도용해 멕시코 회사채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가 적발됐다. 불법업자들은 금융사 사칭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지점 정보를 누르면 해당 금융사 SNS로 연결되게 만들어 위장을 한 뒤 투자자들을 교묘하게 유인했다.

이들은 멕시코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국영 석유기업(P사) 회사채에 투자해 고수익(연 16~17%)을 실현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실제 P사 회사채 수익

률은 만기에 따라 5~10% 수준이지만 불법업자들은 이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며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이다. 특히 이들은 국내 증권사보다 해외 증권사를 통해 채권을 투자하면 환차익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허위 사실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최근 온라인에서 해외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누구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채권, 배당·부동산펀드 등으로 투자를 유인하는 유사한 투자사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 수익률보다 과도하게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고 원리금이 보장된다는 투자를 권유한다면 ‘불법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타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는 업체와는 어떤 금융거래도 하지 말고,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KB증권,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 추진

기술 급성장에 따른 부작용 예방

KB증권은 기술 급성장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인공지능(AI) 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해 ‘AI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고 30일 밝혔다.

AI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함에 따라 금융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도 AI가 활용되고 있다. 로보어드바이저, 상담 챗봇 및 머신러닝 기반의 상품추천 등 AI 기반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고객들은 더욱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AI 알고리즘의 편향성, 고객 정보의 오남용, 부당한 차별 등 새로운 위험 요소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KB증권은 AI 기술 및 법률 전문성을 보유한 삼성SDS, 김·장 법률사무소, 삼성KPMG 등 전문업체의 컨설

팅을 통해 AI 기술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법적 문제와 AI 학습 데이터·모델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식별해 방지할 예정이다.

더불어 고객에게 신뢰할 수 있는 AI 금융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AI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다. ‘AI 거버넌스 체계’의 수립 목표는 AI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 공정성, 다양성 등을 존중할 수 있는 윤리 원칙 수립 및 준수체계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AI 시스템 개발을 위한 사내 규정을 체계화하는 것이다.

실무 부서에서 AI 관련 시스템·서비스 도입 검토 시 검토 방법 및 AI 활용 위험 감소방안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AI 업무 매뉴얼을 제시하고, AI 서비스별 위험도를 측정해 산출된 위험 수준별 관리 및 모니터링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신하은 기자

공항사용료 환급, 입법 예고… ‘절차 단순화’ 시스템 절실

국토부, 항공권 이용안한 경우
소비자에 환급청구권한 주기로

“구매처와 무관, 항공권 제시하면
중간단계 없이 바로 환급해 줘야”

항공권에 포함되는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항시설법 개정안 입법이 예고된 가운데, 실질적인 환급 활성화를 위해선 환급 절차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2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항사용료는 티켓 가격에 포함되기 때문에 항공권 환불 규정에 따라 구매처를 통해서만 환급받을 수 있다.

항공권 구매 시 인천·김포 공항의 국제선에는 공항사용료 1만7000원이 부과된다. 그 외 공항은 1만2000원이며, 국내선의 경우 인천공항 5000원, 그 외 4000원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예매 취소 없이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이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

/뉴시스

경우에도 소비자가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여객공항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만 부과해야 하지만, 비행기 미탑승 고객은 여객공항사용료 환급 청구 권한이 없어 항공사 접수익으로 관리됐다. 이에 공항사용료를 소비자에게 돌려주

기 위해 환급 청구 권한을 부여하고, 환급 가능 기간 내에 해당 사실을 안내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하지만 권한 부여 및 안내 외에도 간단하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단 의견이 나온다.

항공사는 여객공항사용료를 항공권 판매 금액에 포함하고 있어, 항공권 환불 신청과 동일한 규정에 따라 환급받

아야 하기 때문이다.

항공사는 원칙적으로 항공권 구매처를 통해 환급 및 환불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항공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이 아니면, 공항사와 무관하게 플랫폼이나 여행사에 환불을 요청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 해외 OTA(Online Travel Agency)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처

럼 판매자와 구매자의 소통이 어려운 경우 환불이나 환급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소비자원에는 지난 2023년 해외 서비스 구매 관련 7029건의 상담이 접수됐는데, 주요 상담 내용 중 하나는 OTA를 통해 거래되는 항공권과 숙박권 환불 관련 문의였다.

항공권 환불이나 환급을 위해 구매처에 따라 여러 복잡한 중간 단계를 거쳐야 할 수도 있는 만큼 절차 단순화가 필요하다. 구매처와 무관하게 공항이나 항공사를 통해 항공권을 제시하면 금액을 환급 받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항공사로부터 여객 정보를 받고, 그 여객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는 여러 과정이 소요된다”면서 “공항에서 그렇게(환급) 하게 될지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항공사로 될지 계속 논의가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대성 기자 iunmids@metroseoul.co.kr

벤틀리, 슈퍼카 수준 퍼포먼스로 韓 공략

더 뉴 컨티넨탈 GT·GTC 스피드
직전모델 대비 최고출력 19% 향상
파워트레인 782마력 시스템 출력

럭셔리 슈퍼카 브랜드 벤틀리가 4세대 ‘더 뉴 컨티넨탈 GT 스피드’와 컨티넨탈 ‘더 뉴 컨티넨탈 GTC 스피드’를 앞세워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선다.

벤틀리는 30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벤틀리 큐브에서 ‘더 뉴 컨티넨탈 GT·GTC 스피드’ 공식 출시 행사를 열었다. 벤틀리는 한국 시장에서의 폭넓은 라인업 구축을 바탕으로 섬세한 럭셔리 카 고객의 취향을 저격할 계획이다.

벤틀리모터스코리아는 이번 공식 출시로 ▲더 뉴 컨티넨탈 GT ▲더 뉴 컨티넨탈 GTC ▲더 뉴 플라잉스피어 ▲벤데이가 ▲벤데이가 EWB에 이르는 넓은 모델 포트폴리오를 한국 시장에 구축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더 뉴 컨티넨탈 GT·GTC 스피드’는 슈퍼카 수준의 강력한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벤틀리 브랜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일반도로용 모델이자, 벤틀리의 ‘지속 가능한 럭셔리’라는 이상을 구현한 차량이다.



더 뉴 컨티넨탈 GT 스피드 모습.

/벤틀리

더 뉴 컨티넨탈 GT·GTC 스피드에는 새롭게 개발된 울트라 퍼포먼스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했다. 600마력을 발휘하는 신형 4.0L V8 엔진과 190마력을 내는 전기 모터로 구성된 파워트레인이 782마력의 시스템 출력을 발휘하며, 제로백은 3.2초다. 이전 모델보다 최대토크 11%·최고 출력 19% 향상됐으며, 일반도로용 벤틀리 중 역대 최고 성능이다.

순수 전기 동력만으로 최고출력 190마력(PS), 최대토크 45.8kg.m의 성능을 발휘해 최고속도 140km/h까지 가속할 수 있으며, 순수 전기 모드 주행가

능 거리는 WLTP 기준 81km(GTC 78km)에 달한다.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9g/km 수준이다.

더 뉴 컨티넨탈은 1952년 탄생한 R-타입 컨티넨탈의 헤리티지를 계승하면서 미래 비전을 담은 감각적 디자인이 반영됐다. 벤틀리 관계자는 “이번 보텔은 차체 전면부는 종마의 우아한 자세로부터 영감을 받았다”며 “휴식은 맹수의 자세를 콘셉트로 언제나 내달릴 준비를 한 채 웅크린 맹수의 분위기를 연상시킨다”고 소개했다.

1959년형 S2 이후 처음으로 싱글 헤드램프를 채택해 수평 라인을 부각했으며, 크리스탈 컷 다이아몬드 패턴의 가로형 일루미네이티드 라이트가 탑재됐다. 가격은 더 뉴 컨티넨탈 GT 스피드가 3억4610만원·더 뉴 컨티넨탈 GTC 스피드가 3억8020만원부터 판매된다.

벤틀리는 2025년 상반기 한국 시장에 공식 출시 예정인 더 뉴컨티넨탈 GT·GTC 물리너의 주문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대성 기자

한화오션, ‘프리 피드’로 글로벌 정조선

미국·프랑스 선급서 개념승인 획득

한화오션이 자체 개발한 표준 해양 플랫폼을 선보이며 글로벌 해양 시장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한화오션은 미국과 프랑스 선급으로부터 ‘표준 FPSO Pre-FEED(프리 피드)’ 설계에 대한 개념 승인(AIP·Approval In Principle)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 설비(FPSO, 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는 해저 시추구로부터 원유나 가스를 끌어올려 정제해 저장하고 운반선에 하역까지 담당하는 ‘바다 위의 공장’이다.

한화오션이 개발한 표준 FPSO 설계는 길이 340m·폭 62m 크기다. 일일 원유 생산량은 19만 배럴이고, 약 238만 배럴의 원유를 저장할 수 있다. 또 최대 5만 5000톤 중량, 1만 7600제곱미터(m2) 규모의 원유 및 가스 생산 설비 상부 구조물(Topside)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최대 20년간 ‘리도킹(Re-docking)’ 없이 가동 가능한 선체(Hull) 설계를 채택해 운용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한화오션은 개념 승인으로 고객사에 공사 기간 단축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설계를 제시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해양 환경 조건이 까다로운 아프리카와 남미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양성운 기자 ysw@

대한항공, 샌프란시스코 취항 30주년 행사

인천행 KE024편 고객 대상

대한항공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취항 30주년을 맞아 고객 대상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29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취항 30주년을 맞아 샌프란시스코발 인천행 KE024편 고객을 대상으로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1994년 10월 29일 서울~샌프란시스코행 정기 여객편을 처음 띄웠고, 해당 노선은 매년 주 7회 이상

운항을 해왔다. 지난해 총 탑승객 수 17만6000여 명으로, 미서부 노선에서 로스앤젤레스(LA)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승객을 실어날랐다.

대한항공은 30번째 탑승수속 승객에게 왕복 이코노미 항공권 1매를 증정했으며 탑승객 전원에게 에코백, 초콜릿 등을 선물했다.

이진호 대한항공 미주지역본부장은 “지난 30년 간 한국과 샌프란시스코를 오가는 모든 순간에 대한항공과 함께해 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양성운 기자 ysw@

코웨이 ‘비렉스’ 신상품 ‘소프트 쿠션 프레임’ 출시

코웨이가 포근한 쿠션 헤드 디자인으로 편안함을 강조한 ‘비렉스(BEREX) 소프트 쿠션 프레임’을 출시했다.

30일 코웨이에 따르면 비렉스 소프트 쿠션 프레임은 볼륨감 있는 헤드보드와 양측의 곡선형 날개 쿠션이 측면까지 감싸주는 디자인을 적용해 포근함과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풍성한 헤드부 쿠션이 등과 뒷목을 탄탄하게 지지해줘 침대에 기대어 앉아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침대 양 옆은 곡선으로 아늑하게 감싸 수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김승호 기자 bada@

티저 이미지 첫 공개… 출시 초읽기

현대자동차가 아이오닉 5·6에 이어 전기차 라인업의 플래그십 모델인 ‘아이오닉 9(IONIQ 9)’의 출시 초읽기에 들어갔다. 현대차는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라인업을 확장하는 ‘아이오닉 9(IONIQ 9)’의 티저 이미지를 30일 처음으로 공개했다.

아이오닉 9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에 기반한 현대차의 세 번째 모델로, 글로벌 전기차 브랜드로 성장을 견인할 전동화 SUV 모델이다. 차명인 아이오닉 9는 현대차의 전용 전기차 명명 체계에 따라 전용 전기차 라인업인 ‘아이오닉(IONIQ)’에 대형 차급을 의

미하는 숫자 ‘9’를 결합해 완성했다.

이날 현대차가 공개한 아이오닉 9 티저 이미지는 차량의 실루엣과 전면부 램프, 캐릭터 라인, 휠의 모습을 담고 있다. 아이오닉 9의 디자인은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날렵한 외관과 넓고 아늑한 실내 공간을 동시에 품고 있는 보트(Boat)에서 영감을 받았다.

현대차는 이를 바탕으로 아이오닉 9에 공기 흐름을 최적화하고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하는 ‘에어로스테틱(Aerosthetic)’ 실루엣을 연출했다. 에어로스테틱은 공기 역학을 의미하는 ‘에어로다이내믹(Aerodynamic)’과 미학을 뜻하는 ‘에스테틱(Aesthetic)’의 합성어로 공력의 미학을 담은 디자인을 말한다.

/양성운 기자

현대자동차 ‘아이오닉9’ 베일 벗는다

요식업 200억 매출 신화… ‘K-푸드’ 넘어 ‘K-클린’ 도전

메트로가 만난 기업人

전 준 형 비하인드 대표

곱창브랜드 ‘곱’, 숙성돼지고기 전문점 ‘월화고기’를 창업하며 요식업 분야에서 성장하고 있는 비하인드 전준형 대표(사진). 전 대표는 요즘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청소플랫폼 ‘비하인드 케어’를 내놓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청소 시장이 완전히 바뀌었다. 인력 시장에서 중국인 등 외국인이 썰물처럼 빠져나간데다 비용까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장사와 사업 모두 고객에게 집중하면 성공한다. 특히 사업은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줄 수 있는게 있어야 한다. ‘give and take’가 중요하다. 청소플랫폼 회사를 만든 것도 같은 맥락이다.”

비하인드 케어는 에어컨, 해충방역, 사무실·공장, 교육기관·관공서, 상가·음식점·건물 등 청소와 관련해 거의 모든 영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에어컨 청소(5단계 완전분해세척)에 대해선 특허까지 갖고 있다.

“우리는 서울에서 장애인 교육생들에게 세탁기, 에어컨 분해 청소 위탁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객사들에게 장애인 고용을 연계하고 있다. 비하인드는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고객사들은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을 덜 수 있어 일석

OP Co., Ltd.

WOLHWA Co., Ltd.

BYV

b

tre

비하인드

비하인드

비하인드

비하인드

비하인드

비하인드

비하인드

비하인드

비하인드

비하인드

비하인드

비하인드

비하인드

비하인드

비하인드

비하인드

비하인드

비하인드

비하인드

비하인드

비하인드

비하인드



“

고객 중심 청소 서비스 플랫폼 구축 해외 진출
장애인 고용·블루리본 서베이 연계 통한 차별화

요식업 브랜드 7개… ‘월화고기’ 매장만 14곳
인니서 포차 K-푸드 승부수, 필리핀 시장 도전
韓, 자영업 제약 많아 답 없어… 돌파구는 해외

이조다. 또 한국의 ‘미슐랭 가이드’라고 불리는 블루리본 서베이가와도 연계해 관련 평가시 고객사가 운영하는 식당의

위생에 대해 더욱 공정하고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무엇보다 비하인드는 청소를 잘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미소)”

전 대표가 2009년 당시 서울 영등포 문래동에서 곱창집을 열 때만해도 여기 까지 올줄 상상하질 못했다. 자신을 흑수저 중에 흑수저라고 부르는 그가 실패를 거듭하다 남아 있는 돈 5000만원으로 승부수를 건 것이 지금도 서울 문래동의 맛집으로 소문난 ‘곱’이었다. 전 대표는 5년 후엔 ‘월화고기’ 브랜드도 내놔다.

“월화고기를 선보일 당시 대부분 가게가 국내산 암돼지를 썼다. 수많은 고깃집 사이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은 ‘정직’ 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고기를 구매하면서 거래처에 ‘제일 좋은 고기를 달라’고 했다. 돼지고기에도 소고기처럼 ‘1+ 등급’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그다음부터 우리는 제일 좋은 1+돼지고기만 쓴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다. 한 종편 방송프로그램에선 월화고기를 ‘착한삼겹살’로 인정하면서 방송 이후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곱’, ‘월화고기’를 포함해 전 대표가 만든 요식업 브랜드만 현재 7개에 이른다. 월화고기 매장만 14곳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하나도 문을 닫지 않았다는 점이다. 브랜드 전체 매출은 200억 원을 넘어섰다.

전 대표는 가게가 하나씩 안정을 찾아가면서 고기 유통, 주류 공급, 온라인 마케팅, 소스 제조 등의 분야를 수직계열화했다.

월화고기 매장 중 가장 큰 서울 보라

매점에는 신선한 쌀을 공급하기위한 ‘도정실’도 갖춰놓고 있다.

전 대표는 요즘 인도네시아를 자주 오간다. 한국에서 16년간 음식 장사로 잔뼈가 굵은 그가 ‘K-푸드’의 승부처로 삼은 곳이 인도네시아이기 때문이다.

그는 “인도네시아는 ‘할랄’ 때문에 음식이 매우 엄격하다. 돼지고기로 된 음식도 안된다. 현지인을 대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술이 없는 포차’가 콘셉트다. 음식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포차를 만들 것이다. 닭갈비가 메인메뉴다. 떡볶이를 중심으로 한 세트메뉴도 있다. 포차라고는 하지만 식당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웃었다.

인도네시아에선 올해 안으로 2호점까지 열 계획이다. 당연히 프랜차이즈도 염두에 두고 있다.

첫 해외 공략지인 인도네시아에서 순조롭게 뿌리내리면 다음은 필리핀이다.

“한국에서 자영업은 제약이 너무 많다.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다. 인건비가 비싼 것도 그렇지만 (일할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 외국인 취업은 비자 규제가 심해 쉽지 않다. 설비투자비도 많이 든다. 잘 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과 격차도 너무 심하다. 한국에서 음식점을 하는 것이 매년 힘들었지만 갈수록 답이 없다. 우리같이 오래한 매장도 힘들긴 마찬가지다. 돌파구는 결국 해외밖에 없는 것 같다. 그래서라도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中企 3분기 수출액, 전년 대비 5.9% 성장

중기부, 수출동향… 284.7억 달러
1~3분기 누계 수출기업수 ‘역대 최대’
화장품·자동차 등 주력 품목 확대

중소기업 수출액이 3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3분기 누적 수출 중소기업 숫자도 가장 많았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4년도 3분기 중소기업 수출 동향’에 따르면 3분기 중소기업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5.9% 증가한 284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중소기업 주력품목의 글로벌 수요가 확대되고 수출국을 다변화하는 등 수출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4분기 이후 분기별 수출액 증가율이 상승하는 추세다.

3분기 누계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4.7% 증가한 845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3분기 누계 수출 중소기업은 8만 6877개사로 전년동기대비 1.3% 증가했다. 이 역시 1분기부터 3분기까지 합하면 역대 최고치다.

월별로 살펴보면 7·8월 중소기업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3.4%, 7% 증가했다. 9월은 추석연휴로 인해 국내 조업 일수가 줄어들면서 소폭 감소했다.

온라인 수출은 2억9000달러로 3분기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했다. 화장품(+

68%), 컴퓨터(+66.9%), 의류(+36.5%)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실적을 견인했다.

올해 3분기에는 중소기업 상위 10대 수출품목 중 8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특히 1위 수출품목인 화장품(17억달러)은 미국 수출이 43.6% 크게 증가했다. 동시에 유럽, 중동 등으로 수출국을 다변화한 결과 3분기 실적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자동차(14억5000만 달러), 반도체제조용장비(10억8000만 달러) 역시 수출 호조세가 지속됐다.

올해 3분기 중소기업 상위 10대 수출국 중 7개 국가의 수출도 증가했다.

/김승호 기자

벤처協 INKE, 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세계한인무역協과 업무협약 체결

벤처기업협회가 운영하는 세계한인 벤처네트워크(INKE)가 세계한인무역 협회(World-OKTA)와 손잡고 국내 벤처·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추가 지원한다.

30일 벤처협회에 따르면 INKE와 World-OKTA는 29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비엔나 비엔나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보공유, 사업협력 등을 도모기로 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선 28일부터 오는 11월1일까지 ‘제28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가 열리고

있다.

INKE는 국내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벤처기업가들의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위해 벤처협회에서 운영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다. 현재 21개국, 40개 도시, 총 100여명의 회원이 있다.

World-OKTA는 세계 한민족 경제공동체의 무역증진과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해 현재 71개국, 150개 지회를 운영하고 있다.

협약을 통해 양단체는 ▲벤처스타트업 대상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 공동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中企 옴부즈만, 지역맞춤 규제혁신 ‘첫 발’

기업은행과 규제·애로발굴 등 지원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기업은행과 규제 혁신에 나선다. 30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최승재 옴부즈만과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전날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규제·애로사항 발

굴 및 해결 ▲규제혁신 사례 홍보 및 규제개선 활동 장려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지속 성장 가능하고 공정한 기업 생태계 조성 등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지원정책 제언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채널을 확장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혁신과 경영활로 개척을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 특별대출을 지원한 기업은행과 오랜 기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온 중소기업 옴부즈만 모두에게 의미가 크다.

김성태 행장은 “복합적인 규제로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어느 때보다 규제혁신과 규제대응이 중요한 시기”라며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환경 개선과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中企 업황 경기전망지수, 2개월 오르다 ‘주춤’

중기중앙회, 3064개 中企 대상 조사

2개월 간 상승했던 중소기업 업황 경기전망지수(SBHI)가 11월엔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3064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11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해 30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11월 SBHI는 77.1로 10월보다 1.3포인트(p) 하락했다.

지난 2개월간(8→9월 0.8p ↑, 9→10월 1.0p ↑)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못

한 것이다. 전년동월(80.7) 대비로는 3.6p 하락했다. 제조업의 11월 경기전망은 전월대비 2.0p 하락한 82.3으로 나타났다. 비제조업은 전월대비 1.1p 내린 74.8이었다. 건설업(71.8)은 전월대비 0.4p 하락했으며, 서비스업(75.4)은 전월대비 1.3p 내렸다.

올해 11월의 SBHI와 최근 3년간 동월 항목별 SBHI 평균치와 비교해보면 제조업에서 원자재, 자금사정, 설비, 영업이익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김승호 기자

대학로 아트포레스트 2관
2024.10.02 ~ OPENRUN

델타 보이즈

우리 노래,
지금도 하고 있어요

출연

서신우
정지호
장우진
정주호
최기원
강지훈
정영성
박주용
김호창
김도경
윤선근
박준성
김도후
김단율
장탁현
조제상
정휘욱
김소민

프로듀서 김건하 연출/각색 조성진 음악감독 강찬하 무대디자이너 정용현 조명디자이너 유은경 음향디자이너 Team Mr-J 조연출 장문희 의상/소품 장문희 총괄 콘텐츠 디자인 안재린 포토 윤준식
주최 파이어🔥 기획/제작 파이어🔥 제작감독 김단율 제작협력 (주)펠름초이스 홍보마케팅 이제이컴퍼니 예매처 인터파크 문의 02-764-9102 협찬 삼양식품

인터파크 평점
10.0점

17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 경쟁 부분 대상

21회 인디포럼
올해의 관객상



한우협회 “합리적 가격 기준점 제시… 소비자 부담 경감”

한우 가격 정보 앱 ‘여기고기’ 론칭
알뜰판매점 홍보 등 소비거점 조성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재추진 건의
내일 전국서 ‘한우의 날’ 기념 행사

전국한우협회가 한우 가격 정보 앱인 ‘여기고기’를 론칭하며,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처럼 판매소별 가격을 제공하고 합리적인 가격기준점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전국한우협회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28일 세종시 금남면의 노릇노릇 캠핑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11월1일 한우 먹는 날’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협회는 간담회를 통해 소매가격이 비싼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설명했다. 전국의 한우 알뜰판매점을 홍보해 산지 가격과 소비가격의 연동을 유도하고, 로컬푸드 개념을 기반으로 한 지역 한



지난 28일 세종시 금남면의 노릇노릇 캠핑장에서 열린 ‘11월1일 한우먹는 날’ 기자 간담회에서 민경천 한우협회장(오른쪽)과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이 참석해 한우농가와 소비자 편익을 위한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대환 기자

우 소비 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농협의 유통단계 축소와 하나마트 권장판매가격 제시 등을 통해 도소매가격의 연동성을 강화하고, 민간 유통채널의 가격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협회는 한우 가격과 관련해 정부에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으로 추진됐던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의 재추진을 건의하고 있다. 민경천 한우협회 회장은 “단기적 대책으로 추진 중인 대대적 소비촉진과 별도로, 중장기적인 소비 안정화를 위해 축

산물 직거래 판매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한우의 합리적인 가격을 바탕으로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고 산지가격연동제도와의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우수급안정 전담반(TF)의 최우선 과제로는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을 꼽았다. 선제적 수급안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비육용 암소시장을 육성할 계획이다. 농협 4대 공판장 전광판에 미경산암소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고, 소비 단계에서도 이를 표기하면 비육용 암소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번식 농가 보호를 위해 오랫동안 논의해 온 송아지생산안전제 개선에 대해서도 마침표를 찍을 계획이다.

협회는 내달 1일 한우의 날을 기념해 한우고기 반값할인 및 숯불구이축제 등 다양한 ‘한우 먹는 날’ 행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올해 행사는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하게 준비됐다. 지난해에 이

어 서울 하나로마트 양재점 앞 특별행사장에서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한 다. 개막식에서는 한우곰탕 300인분 나눔과 전국한우협회 홍보대사 차민욱 셰프의 한우 라이브 쿠킹쇼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9개 오프라인 유통사와 쿠팡, SS G닷컴, 지마켓, 11번가 등 6개 온라인 업체, 우리한우판매점 등 28개 유통채널에서는 내달 8일까지 한우고기를 정가가 대비 최대 65%까지 할인판매한다.

민경천 회장은 “11월 1일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은 국민적 한우사랑에 대해 한우농가가 저렴한 가격으로 보답하는 진심을 담은 감사제다”라며 “이날만큼은 5000만 국민이 한우로 하루를 채우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며, 대대적인 한우할인행사와 축제를 준비했으니 마음껏 즐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농진청, 버섯 소재 친환경 포장재 상용화

버섯 수확 후 배지·균사체 이용
기존 스티로폼보다 강도 4배 우수
실질적 상용화 사례 이번이 처음

버섯을 활용한 친환경 소재가 대량 생산돼 친환경 포장재 등으로 사용된다.

농촌진흥청은 30일 버섯 균사체를 활용한 친환경 산업소재 개발한 이후 3년여의 민관 협력 연구를 거쳐 산업화의 첫걸음을 떼게 됐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환경보존과 자원순환, 해외 기업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고자 2021년부터 원천기술 확보 연구에 돌입했다. 그 결과, 버섯 수확 후 배지와 균사체를 이용해 스티로폼 대체 소재, 가죽 대체 소재 등 핵심 제조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 7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생분해가 가능한 친환경 포장재는 버섯 수확 후 배지에 양분·수분을 공급, 내외부 균사체가 치밀하게 자라게 하는 배양 기술로 만든다. 농진청 독자 기술로 만든 포장재는 기존 스티로폼보다 강도가 4배가량 우수하다.

가죽 대체 소재는 톱밥 위에 면섬유를 놓고, 균사체가 자라게 한 뒤 균사체와 면섬유를 동시 수확해 만든다. 동물 가죽보다 탄소 배출량과 물 사용량을



김명수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버섯 수확 후 배지와 균사체를 활용해 스티로폼 대체 소재, 가죽 대체 소재 등 핵심 제조 기술을 개발, 7건의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스시

90% 이상 줄일 수 있다. 농진청은 버섯 가죽 제조 핵심기술과 토종버섯 균주 3종을 확보했다.

농진청은 균주 확보, 배양, 소재 제조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우선 스티로폼 대체 소재 상용화를 위해 새싹기업과 버섯 농가가 상생할 수 있는 민관 협업 시스템 ‘가치성장’을 구축했다. 농촌진흥청이 균주와 기술을 농가와 산업체에 제공하면, 농가와 산업체는 농가 배양 시설을 이용해 소재를 생산한다. 농가는 농산부산물의 재활용과 빈 배양시설의 활용도를 높여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기업은 적은 자본으로 대량 배양시설을 이용해 안정적으로 상품을

만들 수 있게 된 셈이다.

농진청 관계자는 “원료비 절감 효과는 36.4%, 신선 버섯 생산 판매 외 추가 이익은 약 8억원 정도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균사체를 활용한 포장 완충 소재를 단기간에 2만~3만개 생산해 실질적 상용화를 이뤄낸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관계자는 “기관, 농가, 업체 등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해 온 기술 개발을 통합해 협업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현장과 버섯 농가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균사체 기반 소재 산업화를 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차상근 기자 skc8472@

농식품부, 가공용 쌀 온라인 거래 연내 개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서 진행

정부는 가공용 쌀의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내 거래가 연내 시작된다고 30일 밝혔다. 거래되는 가공용 쌀은 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이 생산한 고품질 쌀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연말까지 약 4400톤(40억 원) 규모의 가공용 쌀 매매가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거래는 쌀가공협회가 소속 회원사(총 1744곳) 업체의 희망 물량을 일괄 구매해 배정하는 공동구매 형태로 이뤄진다. 기존에는 개별 업체가 가공용 쌀을 구매하기 위해 미곡종합처리장을 직접 찾아가다남에 따라, 거래가격 협의, 품질 확인 등 거래 성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

반면 이번 거래는 쌀가공협회가 전문 구매 대행 기관으로서 가격 협상, 품질 검증, 물량 배송 등의 행정 절차를 수행한다. 기존의 산발적이던 거래를 통합 진행해 거래 과정을 효율화한다.

협회에 따르면 기존에는 판매자 정보가 부족하여 원하는 품질의 원료를 공급받기 어려웠다. 이번 거래가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공동구매의 첫 사례인 만큼, 농식품부도 향후 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해 다품목 소량 합·배송 지원 등 공동물류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쌀가공업체의 미곡종합처리장 쌀 구매는 쌀 소비 확대에 이어질 전망이다. 쌀가공산업은 2022년 국내 매출액이 8조 원을 넘어서고,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국내시장 규모는 7%, 수출액은 19%를 기록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엄격한 품질 관리체계를 갖춘 미곡종합처리장 쌀을 활용하는 만큼, 쌀가공업계는 원료 고급화를 통한 제품 차별화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내다봤다. 미곡종합처리장 업체도 온라인도매시장을 반기는 분위기다. 거래 후 즉시 대금정산으로 미수금 발생 우려가 없어 현금흐름이 개선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한전 ‘빅스포’, 에너지 신기술 최초 공개

150여개 에너지 관련 기업 참여

국내 최대 에너지 산업 박람회 ‘빅스포(BIXPO) 2024’가 내달 6일 광주에서 개막한다. 한국전력은 이날부터 8일까지 3일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국내외 150여개 에너지 관련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빅스포 2024 행사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10회를 맞은 빅스포는 ‘에너지 미래로 향하는 여정’을 주제로 신기술 전시회, 국제컨퍼런스, 국제발명특허대전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첫 날 개막식에서는 요 콕스(Jo Cop s)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EC) 회장이 기

조연설을 통해 미래 전력망 확충과 K-Grid 수출 동력 창출을 위한 ‘DC(직류) 비전 선포’를 통해 제2의 전력망 혁신의 실현계획과 의지를 천명한다.

이날 빅스포 역사상 처음 시행하는 신기술 공개 행사도 별도 진행된다. LS일렉트릭, LS전선, HD현대일렉트릭, 아모지(AMOGY) 등 국내외 에너지기술 선도기업들이 참여해, 최첨단 에너지 신기술과 제품을 최초로 선보일 예정이다.

신기술 전시회(6~8일)는 ‘청정성’, ‘안정성’, ‘효율성’ 등 3개 메인 테마로 구성되며, 대기업과 글로벌 선도기업들이 참여해 차세대 전력기술과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시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탄소감축 기업 돕는다… 800억 융자 지원

산업부, 대상 기업 추가 모집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 정부가 8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추가로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계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는 ‘2024년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대상 기업을 10월 31일 ~ 11월 18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는 온실

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미래 기술·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장기·대규모 시설 및 연구개발 프로젝트다.

산업부는 앞서 1,2차 공모를 통해 올해 21개 신규 프로젝트를 선정해 향후 3년간 총 2513억원의 융자지원 계획을 확정했으며, 이후 추가 자금을 확보해 이번 3차 지원 공모를 개시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2023년 10월 시범운용)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대응력

을 높일 수 있도록 철강·시멘트·수소·알루미늄·비료·전력산업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선정평가 시 가점(2점)을 부여한다.

선정된 프로젝트는 14개 시중은행을 통해 500억원까지, 최대 10년간(3년 거치, 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저리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기준 적용금리는 중소·중견기업은 1.43%, 대기업은 1.93%로 1년 변동금리다.

융자비용은 프로젝트 총 투자금액 대비 중소기업은 100%, 중견기업은 90%, 대기업은 50% 이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고마진’ 패션·뷰티 편성 확대… 올해 영업이익 4배 상승 전망

〈전년대비〉

롯데홈쇼핑

연매출은 9350억, 소폭감소 예상
‘원소싱 멀티채널’ 전략도 통해
해외브랜드 ‘단독판권’ 차별화

롯데홈쇼핑이 올해 괄목할 만한 성적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패션, 뷰티 등 고마진 상품군 위주로 방송을 편성하고 판매 채널을 늘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새로운 브랜드 발굴에도 속력을 내면서 성장동력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롯데홈쇼핑의 연매출은 9350억원으로 전년 대

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고마진 패션·뷰티 품목의 채널 편성이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또 송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소싱 멀티채널’을 본격화한 것도 도움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롯데홈쇼핑은 올해 2분기 패션 품목의 편성 시간을 전년대비 10% 늘린 후 주문건수 20%가 증가했다. 뷰티 상품은 신상품의 편성 시간을 80% 늘리며 주문 건수가 2배 이상 늘었다.

여기에 이탈리아 친환경 패션 브랜드 ‘우프웨어’와 프랑스의 ‘플로트’ 등

해외 단독 브랜드의 단독 판권을 잇달아 계약하면서 브랜드 차별화를 강화하고 나섰다.

또 롯데홈쇼핑의 TV, 모바일, SNS, 유튜브 등 다양한 판매채널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원소싱 멀티채널’ 전략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도 내고 있다.

이 같은 전략을 통해 롯데홈쇼핑은 올해 상반기에도 영업이익이 261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약 5배 증가하는 성과를 냈다. 다만, 매출은 4599억원으로 0.5% 감소했다.

롯데홈쇼핑은 향후 지식재산권(IP), 건강기능식품 등 신사업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6월 기업 에이치피오와 합작법인 ‘디에디션 헬스’를 설립했다. 이를 통해 처

음 내놓은 제품 ‘덴마크 단백질 이야기’는 출시 첫 날 3000세트가 완판되는 기염을 토했으며 매출 10억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자체 캐릭터 ‘벨리곰’ IP를 활용해 소비자 공략에도 나서고 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벨리곰을 이용한 IP 사업의 누적 매출은 약 200억원에 이른다. 지난 7월 유통업계 최초로 캐릭터 IP를 접목한 게임 ‘벨리곰 매치랜드’를 선보이기도 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롯데홈쇼핑은 고마진 패션·뷰티 상품을 지속 발굴하는 전략을 통해 향후 매출 확대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롯데홈쇼핑 e커머스플랫폼 롯데온은 11월 쇼핑 대전을 앞두고 여느 해보다도 빠른 겨울 아우터 행사를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롯데온 ‘얼리 윈터 페스타’ 내달 6일까지 아우터 할인

유통업계가 본격적인 겨울 행사에 돌입했다. 롯데홈쇼핑 e커머스플랫폼 롯데온은 11월 쇼핑 대전을 앞두고 여느 해보다도 빠른 겨울 아우터 행사를 시작했다

고 30일 밝혔다. 롯데온은 내달 6일까지 ‘얼리 윈터 페스타’를 진행한다. 24년 F/W 신상품과 지난 시즌 베스트 아이템을 최대 20~5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는 행사로 총 40억 물량이 준비됐다.

컬럼비아와 노스페이스, 아이더 브랜드의 다운자켓과 백팩, 슈즈를 단독 특가에 선보이며, 어그와 베어파우 브랜드의 겨울부츠와 슬리퍼도 최대 물량이 확보됐다. 연말 여행시즌을 앞두고 썬소나이트 레드 그룹 캐리어도 준비됐다. 온라인 전용 상품의 경우 최대 5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는 쿠폰과 카드결제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최빛나 기자

쿠팡 ‘스위트 숍’ “수능·빼빼로데이 먹거리 준비하세요”

쿠팡이 11월 수능·빼빼로데이 등 각종 기념일을 겨냥해 다양한 먹거리와 선물 상품 등을 선보이는 ‘스위트 숍(Sweet Shop)’을 내달 14일까지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최대 반값 혜택과 함께 와우회원은 즉시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먼저 ‘11.11 데이’ 테마관에서 막대과자, 초콜릿, 사탕 등 쿠팡이 선별한 인기 스낵과 친구와 연인을 위한 선물 상품들을 내달 11일까지 선보인다. 대표상품으로 ▲빼빼로 럭키박스 기획세트 ▲빼빼로 샘플러 6종세트 ▲헤라 센슈얼 누드 글로스 등을 할인가에 만날 수 있다.

‘수능’ 테마관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험생을 위한 먹거리와 핫팩, 도시락, 필기구 등 수능 응원 아이템을 내달 14일까지 만날 수 있다. 대표상품으로 ▲팁스 스텐 보온 도시락 ▲해피데이 핫팩 ▲상상앤드 행운의 포춘 초콜릿 등을 준비했다.

매일 1~2개 브랜드 상품을 단 하루 최대 혜택으로 만나볼 수 있는 ‘브랜드데이’는 내달 5일부터 11일까지 진행한다.

/최빛나 기자

서울 새로운 랜드마크… ‘명동스퀘어’ 1일 공개

신세계백, ‘신세계스퀘어’ 첫 선
‘디지털 사이니지’ 상시 운영키로

1963년, 대한민국 최초 백화점을 연 신세계가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 명동스퀘어의 시작을 알린다.

신세계는 내달 1일 오후 6시 명동 포스트타워 앞 광장에서 명동스퀘어 오픈을 알리는 ‘2024 Lights up SEOUL, KOREA’ 행사를 펼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신세계는 농구장 3개 크기의 초대형 디지털 사이니지 ‘신세계스퀘어’를 공개하고 명동의 세계화에 앞장선다.

새로운 랜드마크의 오픈을 기념해 신세계백화점 본점 일대도 연중 다채로운 빛의 향연이 펼쳐진다. 연말 한시



신세계스퀘어 거대한 리본이 쓴 연말 문구.

/신세계스퀘어

적으로 운영했던 디지털 사이니지가 상시 운영되는 것.

먼저 서울의 연말을 대표하는 크리스마스 영상이 공개된다. 11월 1일, 신세계는 평년보다 일주일 가량 앞서 연

말이 주는 즐거움과 마법 같은 순간들을 선사하고자 ‘크리스마스의 순간들을 찾아서’라는 주제의 미디어 파사드를 선보인다.

꿈 같은 밤하늘에 화려한 조명으로

/최빛나 기자

롯데백, 크리스마스 야경 명소에 도전

올해 테마 ‘윈더풀 쇼타임’
본점 중심 화려한 장식 예정

롯데백화점이 연말 시즌을 맞아 롯데백화점을 무대로 화려한 ‘크리스마스 쇼타임’을 펼친다.

올해는 내달 1일부터 롯데백화점 전점을 시작으로 롯데아울렛까지 순차적으로 크리스마스 장식을 선보여, 각 지역을 대표하는 크리스마스 야경 명소에 도전한다.

올해의 크리스마스 테마는 ‘윈더풀 쇼타임’으로, 본점을 중심으로 예년보다 더욱 직관적이고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을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테마명이 ‘윈더풀 쇼타임’인 만큼 고객들이 공연에서 느끼는 설렘과 즐거움 등의 감정을 롯데백화점에서 경험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준비했다.

먼저, 본점 앞 거리는 유명 아티스트들과 함께 ‘씨어터 소공’으로 탈바꿈한다. 거리와 출입구를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장식해 마치 1900년대 브로드웨

이 등의 뮤지컬 극장가를 걷는 듯한 느낌을 준다.

또한, 3개의 대형 쇼윈도는 국내 유명 아티스트인 윤여준, 빠키, 그레이스 엘우드와 협업해, 재즈부터 서커스까지 다양한 공연의 장면들이 연상되도록 연출한다. 이 외에도 본관 입구에는 티켓 부스 포토존을 조성해, 고객들이 공연 시작 전 느끼는 설렘을 가득 안고 롯데백화점에 입장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외벽 라이팅 쇼를 진행해, 건너편에서도 롯데백화점을 무대로 펼쳐지는 ‘크리스마스 쇼타임’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도록 한다. 라이팅 쇼는 매일 오후 5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 30분 단위로 약 2시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영플라자의 대형 미디어 파사드에서도 크리스마스 선물을 대표하는 화장품, 디저트, 주얼리, 와인 등이 주인공이 되어 백화점을 무대로 공연을 펼치는 영상을 선보인다.

/최빛나 기자

홈플러스, 4주간 대규모 식품 할인전

‘홈플러스 메가 푸드 위크’ 전개

홈플러스가 온·오프라인 쇼핑 축제가 열리는 ‘할인의 달’ 11월을 맞아 오는 3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4주간 대규모 식품 할인전 ‘홈플러스 메가 푸드 위크’를 전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홈플러스만의 가격 경쟁력에 집중해 먹거리를 ‘메가’급 할인가에 판매한다. 특히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1월 역대급 메가 3일 특가’를 진행해 주요 인기 품목을 최대 50% 할인가에 만나볼 수 있다.

먼저 한우데이(11월 1일)를 맞아해 국내산 고기를 할인하는 ‘한우 한돈 메가 페스타’를 진행한다. 국내산 돼지고기와 양념육은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 대상으로 할인가에 제공한다.

김장철 물가 안정에도 앞장선다. 배추는 홈플러스 가격 투자에 농축산물 20% 할인쿠폰까지 적용해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 대상으로 1통을 3992원에 판다.

행사 첫 주말인 오는 1~3일에는



모델들이 30일 서울 등촌동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강서점에서 ‘홈플러스 메가 푸드 위크’ 행사 시작을 알리고 있다.

/홈플러스

‘11월 역대급 메가 3일 특가’를 통해 ‘보덕돼(보리 먹고 자란 돼지) 삼겹살·목심(100g)’을 마트에서 단돈 990원, 계란(대란, 30구) 2판을 8990원에 선보인다.

내달 13일까지 ‘빼빼로데이’와 ‘수능’ 맞이 행사도 전개한다. 빼빼로, 포키 등 막대과자 30여 종은 1360원부터 다양한 가격대로 내놓고, ‘페레로로쉐’ 7종은 10% 할인한다. 빼빼로데이와 수능 행사상품 2만5000원 이상 구매 시 5000원 상품권을 증정한다.

/최빛나 기자

넥슨 “전 세계에서 인정 받고, 긍정적 영향 주는 기업 될 것”

미디어데이 ‘NEXT ON’

유저에 혁신적 게임서비스 제공
장르·IP연구로 글로벌 게임사 도약
지스타 출품작 5종 세부정보 공개

넥슨은 30일 넥슨사옥에서 미디어데이 ‘NEXT ON’을 개최하고 업계를 선도하는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미래 비전과 진화 전략을 발표했다. 넥스코리아 김정욱·강대현 공동대표는 넥슨의 3대 가치를 통한 기업 경영 가치관을 소개하고, 핵심 강점의 극대화를 통한 IP 파이프라인 강화 및 글로벌 확장 방향성을 제시했다.

◆건강한 게임 생태계 구축위해 긍정적인 영향력 제시

김정욱 대표는 넥슨이 지난 30년간 축적한 경험을 통해 얻은 가치와 앞으로의 방향성을 내다보는 경영 가치관을 제시했다. 특히 기업, 사회, IP 등 넥슨이 보유한 주요 3대 가치를 강화하고 이를 통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비전에 대해 강조했다.

김정욱 대표는 넥슨의 도약을 위한



미디어데이 ‘NEXT ON’ 넥스코리아 김정욱 대표가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넥슨

두 가지 기업 목표로, 세계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게임을 만드는 기업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랑받는 기업을 제시했다.

넥슨은 뛰어난 게임 개발력과 서비스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이끌어내며 강력한 입

지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채용형 인턴십 ‘넥토리얼’을 통한 고용 창출, 지식 공유 콘퍼런스 ‘NDC’를 통한 업계 동반 성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게임 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성장을 이끌어 왔다.

더불어 출범 7년차를 맞이한 넥슨재단을 통해 어린이 의료 지원 사업 및 다양한 코딩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IT 교육 격차 해소, 미래 인재 육성 측면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김정욱 대표는 “앞으로도 넥슨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창의적인 도전을 이어가며, 업계를 선도하는 넥슨다운 게임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시장 진입을 위한 진화 전략 제시

강대현 대표는 지난 30년간 쌓아온 게임 개발력과 서비스 역량을 통해 완성된 넥슨만의 핵심 강점으로 글로벌 시장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진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넥슨 생태계 안에서 유저가 더 오래 머물고, 지속적으로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 집중한다.

강대현 대표는 유저의 경험을 확장하기 위한 두 가지 목표로 강점의 극대화를 통한 서비스 강화와, 도전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파이프라인 4가지 강화 전략을 제시했다.

▲IP 파워 및 프랜차이즈 강화 ▲라이브 역량이 갖는 퍼블리싱 강화 ▲빅엔트리 프로세스의 본격적 도전 ▲글로벌 영향력 강화 및 경험에 기반한 신규 IP 도전 등이다.

강 대표는 “넥슨의 경험을 바탕으로 완성된 역량을 강점으로 더욱 세밀하게 가공하고, 이를 통해 유저들에게 혁신적인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집중할 것”이라며 “글로벌 게임사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장르와 다채로운 IP 연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지스타에 게임 5종 공개… 시연기도 500대 설치

한편, 넥슨은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4에 선보일 출품작 5종의 세부 정보를 공개했다.

창립 30주년을 맞은 넥슨은 내달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

되는 지스타 2024에 메인 스폰서로 참가하고 B2C 최대 300부스 규모의 전시관을 마련해 넥슨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

지스타 2024 부스는 ‘넥슨의 도약’의 미를 담아 솟아오르는 스피어를 표현한 초대형 LED 스크린과, 유저 체험 중심의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시연작 4종을 선보일 계획이다. MOBA 배틀로얄 ‘슈퍼바이브’, 3D 액션 RPG ‘프로젝트 오버킬’ 하드코어 액션 RPG ‘퍼스트 버서커: 카잔’, 캐주얼 RPG ‘환세취호전 온라인’까지 500여대의 시연 기기를 설치해 많은 관람객들이 전시 기간 동안 시연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는 방침을 밝혔다.

넥슨 지스타 2024 행사 총괄을 맡은 최성욱 퍼블리싱라이브본부장은 “지스타 2024 넥슨관은 유저들이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넥슨의 역사를 추억하는 동시에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연결시킬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서정진, 美 의료진에 ‘짐펜트라’ 경쟁력 알려

〈셀트리온그룹 회장〉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美 소화기학회 직접 참여·소통
글로벌 3상 장기사후분석 결과 공개
라인업 구축 통해 글로벌 점유율 확대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사진)이 미국 학회에서 전 세계 핵심 의료진과 직접 소통하며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의 경쟁력을 직접 알렸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는 물론, 맞춤형 처방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셀트리온은 25일(현지시간)부터 엿새간 열린 ‘2024 미국 소화기학회(ACG)’에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짐펜트라(CT-P13SC)’의 글로벌 3상 장기사후분석 결과를 구두 발표로 처음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서정진 회장은 학회에 직접 참석해 전세계 소화기 질환 핵심 의사들



과 직접 소통하고 짐펜트라를 비롯한 셀트리온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의 치료 효능과 경쟁력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ACG는 90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지닌 미국 소화기 관련 주요 학회 중 하나로, 전 세계의 소화기 질환 전문가들이 모여 최신 연구와 임상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다. 올해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에서 열렸다.

이번 학회를 통해 발표된 임상 결과는 2년(102주) 동안의 장기 추적연구에 대한 내용으로, CT-P13SC 단독 투여군과 면역억제제 병용 투여군의 차이를 분석해 유효성 및 안전성, 면역원성을 비교한 결과다.

해당 발표는 192명의 크론병(CD) 환

자와 237명의 궤양성 대장염(UC) 환자를 대상으로 54주차부터 102주차까지 CT-P13SC 단독투여와 면역억제제 병용투여 간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양군 간 유효성과 안전성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며, 면역원성 측면에서도 단독투여가 면역억제제 병용투여와 비교해 항약물 항체(ADA) 전환율에서도 안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서 회장은 탄탄한 자가면역질환 제품 라인업 구축을 통해 글로벌 시장 내 경쟁력 강화와 점유율 확대에 속력을 낸다는 전략이다. 특히,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전문 의료진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영향력을 높이는 동시에 맞춤형 처방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사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정관장 “홍삼, 혈당 조절에 도움 줄 수 있어”

‘지엘프로 코어·더블컷’ 2종 출시

정관장이 국내 처음으로 홍삼이 가진 혈당 조절 효과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혈당 관리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정관장은 혈당 케어 건강기능식품 ‘지엘프로(GLPro) 코어’와 ‘GLPro 더블컷’ 2종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GLPro 코어와 GLPro 더블컷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기능성을 공식 인정 받은 정관장 홍삼(KGC05pg)을 주원료로 한다.

KGC인삼공사는 기존 기능성 원료와 다르게 홍삼이 공복혈당과 식후혈당, 당화혈색소 감소, 그리고 혈당 조절 및 식욕 억제 관련 호르몬(GLP-1) 증가를 통한 인슐린 저항성 및 당대사 조절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해 혈당을 조절

한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규명했다.

GLPro 코어는 홍삼에 바나바잎추출물과 여주농축액 등 부원료를 배합해 혈당을 집중 케어할 수 있는 제품으로, 특히 식약처 섭취 안전성 확인으로 부작용 걱정 없이 섭취할 수 있으며, 당류 0g 설계로 건강하게 혈당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GLPro 더블컷은 평소 식사량이 많고 뱃살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제품으로 혈당부터 체지방까지 건강밸런스를 한번에 잡을 수 있는 제품이다. 한국인 남녀 대상 인체시험 결과 내장지방 20% 유의적 감소를 확인한 기능성 원료 레몬바추출물혼합분말까지 함유되어 있어 단순 체중 감량이 아닌 체지방, 내장지방까지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다.

/이세경 기자

LF

에코 퍼·비전 소재 친환경 제품군 강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상품들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생활문화기업 LF의 프랑스 패션 브랜드 ‘바쉬’가 이번 가을·겨울 시즌 에코 퍼(Eco Fur) 아우터 물량을 전년 대비 약 3배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 에코 퍼는 인조 소재로 만든 모피로, 부드러운 촉감과 결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비전 재료는 스웨이드 가죽 소재에도 활용된다. 최근 LF의 영 컨템포러리 여성복 브랜드 ‘엡코너’와 밀레니얼 캐주얼 브랜드 ‘던스트’는 비전 스웨이드 재킷을 출시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우루사 주성분 UDCA, 코로나19 예방 효과

〈우루소데옥시콜산〉

중증 위험도 33% 낮춰

우루사 등 간 기능 개선제의 대표적인 성분인 UDCA(우루소데옥시콜산)의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입증한 국내 연구 결과가 SCI급 학술지에 발표돼 주목을 받고 있다.

동아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백양현 교수와 문상이 교수,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손민국 교수 연구팀은 실제 코로나19 감염자 중 만성 간질환 환자에서 UDCA 복용 여부에 따른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입증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SCI급 국제 학술지 ‘바이러스학

저널’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UDCA와 코로나19 감염 및 중증도 진행의 연관성을 확인한 두 번째 대규모 코호트 연구 결과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성 간질환 환자에서 UDCA 복용은 코로나19 감염과 중증도 진행 위험을 모두 낮추는 것으로 확인됐다. UDCA를 복용한 만성 간질환 환자는 비복용군 대비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20%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망, 심폐소생술, 체외막산소요법 및 중환자실 입원 등을 포함하는 중증 코로나19 위험도도 UDCA 복용군이 비복용군 대비 33% 낮았다. /이세경 기자

LG생건 ‘아우라’, 향기 강화 섬유유연제

건조기 사용 후 잔향 3배 개선

LG생활건강이 프리미엄 섬유유연제 브랜드 ‘아우라’에서 퍼퓸캡슐을 강화해 건조기 사용 후 잔향이 진해진 초고농축 ‘아우라 퍼퓸캡슐 섬유유연제’ 4종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LG생활건강에 따르면 아우라 퍼퓸캡슐 섬유유연제는 일반 섬유유연제 대비 향기 성분이 3.3배 추가된 제품이다. 특히 아우라만의 전문 조향 기술을 적용해 퍼퓸캡슐 함량을 2배 늘렸다는 것이 LG생활건강 측의 설명이다. 건조기 사용 후 남는 잔향이 3배까지 개선된 것이다. 퍼퓸캡슐은 고열로 인해 날아갈 수 있는 향기 성분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다.



LG생활건강이 ‘아우라 퍼퓸캡슐 섬유유연제’ 4종과 같은 향 섬유탈취제를 출시해 하루 종일 향수를 뿌린 듯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LG생활건강

이번 신제품은 ‘양재동꽃시장’, ‘스윗만다린’, ‘미스틱문라이즈’, ‘베이비머스크’ 등 4종류로 구성됐고, 각각의 향과 같은 향을 지닌 ‘아우라 퍼퓸 섬유탈취제’도 함께 나왔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칠레 최정상 아이콘 와인

몬테스



동반위, '경춘선공릉숲길' 상권 활성화 팔 걷어

동반성장위원회가 서울 노원구, 카카오 및 카카오임팩트, 경춘선숲길상인번영회와 지속가능한 '경춘선공릉숲길' 상권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카카오 박윤석 동반성장성고리더, 노원구 오승록 청장, 동반성장위원회 박치형 운영처장, 경춘선숲길상인번영회 최정민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반위



HS효성첨단소재, 유부도 일대 생태교란식물 제거

HS효성첨단소재는 지난 29일 충청남도 서천군 유부도에서 국립생태원, 서천군 생태관광협회, 지역주민들과 함께 환경보전 활동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HS효성첨단소재는 생태교란식물을 제거하고 차광막 설치도 지원했다. /HS효성첨단소재



패션그룹형지, 섬유제품 인증 1호 기업 등극

패션그룹형지가 국산 섬유제품 인증제도 1호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패션그룹형지에 따르면 형지는 한국 섬유산업연합회가 주최하는 '2024 코리아 프로젝트 데이'에서 국산 소재 사용 촉진 노력을 인정받아 인증패를 수상했다. 패션그룹형지 최준호 부회장(왼쪽)과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주소령 부회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패션그룹형지



티웨이항공, 키르기스스탄서 재능기부 교육 봉사

티웨이항공은 키르기스스탄 현지 학교를 방문해 재능기부 교육 봉사활동 'Fly Together with Kyrgyzstan'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임직원 자원봉사단과 비슈케크 현지 지점 임직원들은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지역 학교 두 곳에 방문해 스포츠 시설 기부 및 항공사 직원 체험 강의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티웨이항공

롯데월드

‘가나 행복사서함’ 사연 접수

롯데월드는 '가나 초콜릿' 출시 50주년을 맞아 행복과 추억을 나누는 '가나 행복사서함'을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롯데월드는 롯데월드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가나 초콜릿과 함께한 추억이 담긴 실제 사연을 모집하고 있다.

롯데월드는 소비자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오디오북 사연 및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시, 노래 형식으로 재구성하고 가나 행복사서함에서 소개할 예정이다. /이청하 기자

삼성전자, 키자니아 갤럭시 체험관 오픈

“‘갤럭시 AI’ 비밀요원 되어보세요”

‘AI 시크릿 에이전트’ 앱 제작 어린이들도 쉽게 AI 기능 체험

삼성전자가 어린이들을 위한 ‘갤럭시 AI’ 체험 공간을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서울 잠실점에 ‘AI 비밀 본부 체험관’을 31일 오픈한다고 밝혔다.

체험관은 어린이들이 ‘AI비밀요원’이 되어 키자니아의 대표 캐릭터 ‘바체’를 구출하는 컨셉으로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갤럭시 Z 플립 6의 다양한 AI 기능을 활용해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조작이 익숙한 어린이도 손쉽게 ‘갤럭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AI SECRET AGENT(AI 시크릿 에이전트)’ 앱을 별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체험관에 입장한 어린이들은 가장 먼저 갤럭시 AI를 활용해 요원증 사진을 촬영하게 된다. 촬영된 사진은 ‘인물사진 스튜디오’를 활용해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3D 캐릭터, 수채화 등 다양한 스타일로 변환할 수 있다.

미션존에서는 ‘통역’ 기능이 활용



서울 잠실에 위치한 ‘키자니아 서울’의 ‘AI 비밀 본부 체험관’에서 어린이 관람객들이 체험에 참여하고 있다. /삼성전자

된다. 참가 어린이들은 미국, 프랑스, 스페인 비밀요원이 말하는 외국어를 빠르게 번역해 미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탐색존에서는 ‘서클 투 서치’ 기능으로 미션 수행에 필요한 단서를 검색할 수 있다. 비밀 제트기에 탑승한 뒤에는 ‘삼성 월렛’의 디지털 키로 시동을 걸고 본격적인 탐험을 시작하게 된다.

탐험존에서는 ‘퀵 셰어’, ‘생성형 편집’ 등 ‘갤럭시 AI’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 퍼즐을 맞추거나 단체 사진을 찍는 등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다양한 미션이 진행된다.

체험관에는 ‘갤럭시 Z 폴드 6’의 AR 필터를 활용해 인증샷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도 마련됐다. 체험을 마친 참가자에게는 요원 배지와 키자니아에서 통용되는 화폐인 10 키조를 증정한다.

인증 사진을 SNS에 업로드한 참가자는 요원증, 배지 케이스 등 특별한 굿즈를 받을 수 있다. 체험관을 4회 이상 방문해 요원 배지 4개를 모두 획득한 어린이에게는 갤럭시 신제품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도 제공된다. 키자니아 갤럭시 체험관은 2027년 10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이명숙 성신여대 교수 농식품부 장관상 수상

성신여자대학교는 이명숙 식품영양학과 교수(사진)가 지난 28일 aT 센터에서 개최된 ‘제27회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상’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상’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매년 농림축산식품 분야 기술개발 및 확산에 기여한 연구자를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다.

이명숙 교수는 ‘AI 기반 비만예방 정밀영양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한국인 유전체 기반 정밀영양 알고리즘 개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현진 기자 lhj@

공인회계사회 30개 중학교 회계교육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연말까지 총 30개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회계교육을 실시한다.

한공회는 이달 4일 서울 인창중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2024년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회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교육대상은 서울 소재 15개교와 광주동명중 등 지방 소재 15개교다. 이번 회계교육은 공인회계사와 함께 하는 ‘회계와 미래’를 주제로 공인회계사가 중1 학생들에게 대면으로 강의한다. /허정윤 기자 zellkova@

부음

▲우창자씨 별세, 정우현(기초과학연구원 액시온 및 극한상호작용 연구단 연구위원)·정인현(전 메리츠금융그룹 상무)씨 모친상 = 29일 오후 7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1월1일. 02-2072-2014

▲김덕조씨 별세, 양영봉(창원고용노동지청장)씨 모친상 = 30일, 경남 진주시 민장례식장 101호, 발인 11월 1일. 055-762-4444

▲장영호씨 별세, 조수영씨 남편상, 장윤희·장형서·장준희씨 부친상, 장영철(쿠팡 정책팀 전무)씨 형님상 = 29일 오후 6시, 대구동산병원장례식장 101호실, 발인 11월 1일. 053-250-8441

▲김두이씨 별세, 강호균(한화토탈에너지스 고문)씨 장모상 = 30일 오전 10시, 경상대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1월 1일. 055-214-1913

▲정용석씨 별세, 오동균(대한성공회 청주산남교회 신부)씨 모친상 = 30일 오전 4시 30분, 청주 참사랑병원 장례식장 무궁화2호실, 발인 11월 1일. 043-298-9200

▲이인수씨 별세, 이동원(전 MBC 국장)씨 부친상, 김승우(순천향대 총장)씨 장인상 = 29일, 서울 삼성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11월 1일. 02-3410-3151

▲안경상(변호사·전 감사원 사무총장)씨 별세, 안혁진(SK플래닛)씨 부친상, = 29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3호실, 발인 11월 1일. 02-2258-5940

아산나눔재단, 美 진출 스타트업 가이드 나선다

내달 11일 ‘보이저 플레이북’ 발표 네트워킹 행사… 비즈니스 경험 공유

아산나눔재단은 내달 11일 서울 강남구 테크스타운에서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스타트업들을 위한 온라인 가이드북 ‘2024 아산 보이저 미국 진출 플레이북’을 발표하며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아산나눔재단은 미국 진출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인 ‘아산 보이저’의 일환으로, 성공적인 미국 진출 전략을 공유하는 ‘아산 보이저 미국 진출 플레이북’을 지난해 론칭했다. 집필에는 미국 창업생태계, 전

락, 투자, 비자, 채용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국내 스타트업들이 타깃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올해 발표된 ‘2024 아산 보이저 미국 진출 플레이북’에는 미국 비자 전문가인 주디 장 변호사와 실리콘밸리 생태계 전문가 김범수 트랜스링크 인베스트먼트 부대표가 각각 집필에 참여해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전한다.

특히 지난해부터 주요 집필진으로 참여 중인 김범수 트랜스링크 인베스트먼트 부대표는 20여 년간의 실리콘밸리 내 창업 및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플레이북에는

▲비즈니스 성장 단계에 따른 비자 가이드 ▲미국 비즈니스를 위한 현지 문화 정복 ▲엑셀러레이터를 통한 미국 진출 등의 내용을 새롭게 수록했다.

아울러 이날 기념 행사는 아산 보이저와 플레이북 소개, 패널토크, 네트워킹 세션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패널토크에서는 김범수 트랜스링크 인베스트먼트 부대표가 참여해 미국 진출 전략과 실제 비즈니스 경험을 직접 공유할 예정이다. 미국 진출에 관심있는 스타트업 관계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

/이청하 기자 mlee236@

거래소, ‘행복나눔 어르신 탁구대회’ 개최

생활체육 통해 화합·교류 도모

한국거래소는 30일 부산 강서체육공원 실내체육관에서 ‘제2회 KR X와 함께하는 행복나눔 어르신 탁구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탁구대회는 어르신의 건강한 생활체육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화합 및 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부산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 협회, 부산광역시탁구협회와 협력해 부산지역 총 34개의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 1000여명이 참가해 탁

구대회를 진행했다.

경기방식은 남녀 개인단식 토너먼트로 진행해 1위, 2위, 공동3위 총 8명의 수상자에 대해 상금, 상장, 메달을 수여했다. 또한, 탁구대회뿐만 아니라 축하공연, 경품추첨 등 다채로운 행사를 함께하며 참가선수 및 관중 어르신이 다함께 아우르는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이번 탁구대회를 통해 어르신들의 체력과 건강을 유지하고 교류를 통해 활기찬 삶을 유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노후



한국거래소는 30일 부산 강서체육공원 실내체육관에서 ‘제2회 KR X와 함께하는 행복나눔 어르신 탁구대회’를 개최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대회를 하고 있는 모습. /한국거래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억제된 모험’, 마늘의 매운맛



연운열의
푸드특독

경악전서(32), 고금도서집성 의부전록(3), 광제비급(28), 고추부인양방(3), 군중의약(1), 금계요략(3), 금료소초(3), 급유방(6), 내의원정례(탁지정례) (1), 단곡경험방(8).

이들은 ‘마늘’이란 키워드로 검색한 한 의학 고문서DB에 수록되어 있는 결과로, 괄호안 숫자는 마늘이 언급된 횟수다.

이 가운데 금료소초(金蓼小抄)에는 “갑자기 더위를 먹어 숨이 막힌 경우에는, 마늘 한 줌과 길 위의 뜨거워진 흙을 한 데 섞어서 문드러지게 갈아서 새로 길어온 물에 타서 찌꺼기를 걸러내고 입 속에 부어주면 즉시 깨어난다”라고 쓰여있다. 본초강목에서는 기를 내리고 악장을 아물게 하고, 토혈을 멎게 하고, 심장병에 도움을 준다고 했으며, 허준의 동의보감에서는 비장을 튼튼하게 하고 위장을 따뜻하게 한다고 했다.

한국인에게 필수적 조미 작물로 알려진 마늘은 우리에게 100가지가 유익하고 단 한 가지 단점이 있다고 알려졌는데, 특이

하면서 불쾌한 냄새가 난다는 뜻에서 일해 백리(一害百利)라고 하였다.

마늘, 고추냉이, 양파와 같은 조미 향신료의 매운맛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맛이 라기보다 자극과 고통이라는 감각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맛을 즐기는 이유는 매운 물질을 감지할 때 나타나는 인체의 불편한 경고(시그널)에 대한 일종의 ‘억제된 모험’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전혀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감각의 정상적인 의미를 무시하고 고통을 그 자체로 감수하게 되는 것이다.

매운맛과 같은 통증 감각은 뇌에서 천연의 통증 완화물질을 분비하기 때문에 화끈거리는 느낌이 사라지면 은근히 쾌감이 남게 된다. 우리가 자극적인 음식을 반복적으로 즐기는 이유는 이러한 자극이 섭취에 새로운 경험을 추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극적인 냄새를 내는 원인 물질은 메탄에티올과 메틸알릴설파이드라는 함황화합물이다. 이러한 물질은 마늘이 소화기관을 통과할 때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식후 6~18시간 사이에 냄새가 정점에 달한다.

한편, 입안에 잔류하는 티올이라는 냄새 성분은 과일과 채소에 함유되어 있는

갈변 효소에 의해 마늘 냄새를 무취한 분자 형태로 변형할 수 있으므로 마늘 섭취 후에 샐러드나 사과를 먹으면 냄새 제거에 도움이 된다.

마늘 냄새를 싫어하는 서양에서조차 마늘이 갖는 살균작용 및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항 바이러스 작용 등 약리적 기능성으로 세계 10대 슈퍼푸드에 선정된 바 있다. 마늘이 슈퍼푸드에 선정된 이유 중 하나는 알리신(allicin)과 아조엔 등과 같은 강력한 항암성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늘의 매운맛 성분인 알리신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전 형성을 억제하는 약리적 작용을 하여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자에게 권장하고 있다.

마늘은 피로회복 비타민인 비타민 B의 흡수를 도와 체내 에너지 대사를 북돋는다. 마늘은 기원전 4000년경 이집트 피라미드 건축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마늘에 대한 비용을 적은 기록이 피라미드 벽에서 발견되었을 정도이며, 우리나라 삼국유사에 마늘(蒜)과 쑥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아 사람이 되었다는 건국 신화에서 알 수 있듯이 마늘은 우리 민족과 함께 한 대표식품이다.

/ESG푸드테크 소사이어티 대표

럼피스킨병 방역 위해 백신 부작용 보상 이뤄져야



기지수첩
김대환
(정책사회부)

최근 축산 농가는 가격 하락, 질병 확산 등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현재 한우 한 마리 출하 시 수백만원의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럼피스킨병(Lumpy Skin Disease, LSD)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농가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종 가축전염병인 LSD는 소와 물소에 영향을 미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이 전염병은 모기 등에 의해 전파되며, 젖소의 우유 생산량 감소, 임신소의 유산, 수소의 불임 등을 유발해 농가에 경제적 피해를 초래한다.

LSD는 지난 8월 12일 첫 사례 보고 이

후 총 17건이 발생했다. 중부지방에서 15건, 남부지방에서 2건(경북 상주, 문경)이다. 특히,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단 며칠 사이에 전국 한우 및 젖소 농가 7곳에서 LSD 양성 결과가 보고되면서, 정부의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LSD 예방을 위해 축산 농가에서 송아지 등의 백신접종 일정을 관리하고, 매개곤충에 대한 방제를 포함한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질병 발생 원인을 백신 미접종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백신 접종 이후 식욕감소, 유량감소, 유·사산, 송아지 급사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농가들의 불만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백신 접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

는 상황에서, 정부는 긴급 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향후 가축방역지원 사업에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9월 23일부터는 소 거래 시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를 의무화했고, 이달 11일에는 ‘가축전염병예방방법 개정안’을 통해 백신 접종 명령 위반자에 대한 손해배상권을 신설을 추진하며 농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LSD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현장에서는 일방적 규제와 감시가 아닌 교육과 지원을 통해 농가와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축산 농가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가축질병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농가의 우려를 해결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kdh@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0월 31일 (음 9월 29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진퇴양난인 경우라도 길이 열린다. 48년생 사업이든 직장이든 성실하면 좋은 결과. 60년생 연인에게 다가갈수록 오리무중이다. 72년생 수고롭지만, 인생은 스스로 궁구(窮究)하는 것. 84년생 결혼식을 분수에 맞게 진행해야 편안하다.



37년생 머리가 좀 아프나 오후에 해결된다. 49년생 오늘의 거래는 좋은 성과가 있다. 61년생 동쪽으로 가면 행운이 따르고 소득도 높다. 73년생 겸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가 빛을 발한다. 85년생 운이 약하니 거래는 문서로 하는 게 좋다.



38년생 여행이나 등산을 하기에 건강이 별로 신통치 않다. 50년생 분노보다는 힘을 길러야 할 때. 62년생 가정을 등한시하면 불화가 생긴다. 74년생 사소한 인연도 소중히. 86년생 제3의 유혹이 많은 날이니 조심하지 않으면 반복해서 손해.



39년생 나의 상황과 고통의 무게를 식구들이 몰라라 한다. 51년생 의견대립이 생기거나 발전적으로 나간다. 63년생 집은 부모님께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75년생 성공의 요인에는 반드시 운의 요소가 작용. 87년생 가족들로 즐거운 일이 넘친다.



40년생 종로에서 뽕 맛고 한강에 가서 분풀이. 52년생 상황을 타개하는 길은 오로지 노력뿐. 64년생 조금만 견디면 좋은 결과가 온다. 76년생 삶의 행로에는 한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영역도 대부분이다. 88년생 집 청소로 노력으로 해야.



41년생 소원성취는 시기상조이니 인내를 가져라. 53년생 문서운이 강하니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 65년생 새 인연으로 새로운 거래가 성사. 77년생 자신의 어려움을 모두 다 노출할 필요는 없을 듯. 89년생 봉사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42년생 신규 사업이나 투자는 자제. 54년생 넓은 집을 장만하여 기쁜 날. 66년생 머리가 맑으니 미뤄뒀던 일을 마무리. 78년생 사회는 유기적 관계를 통하므로 힘들어도 해결의 실마리는 있다. 90년생 무책임한 충고나 조언은 가급적 삼가야.



43년생 현재의 부는 조상님 덕. 55년생 물이 들어오는 것이 보이니 노를 열심히 저어야 성공. 67년생 크게 봐야 새로운 것이 보인다. 79년생 행복은 나뿐 아니라 각자에게 고유한 것이니 이기심을 버려야. 91년생 배가 아프니 바깥 활동 자제.



44년생 막혔던 구멍이 뚫려 뚫리는 날. 56년생 잠재되어 있던 능력이 표출되어 주변의 인정을 받는다. 68년생 금전운이 약하니 돈거래는 자제하라. 80년생 수리 법칙을 분별하는 최소한의 지식은 갖춰야. 92년생 소리를 높이는 순간 의도는 왜곡.



45년생 부드러움보다 강하게 나가야 하는 하루. 57년생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69년생 조금만 생각하지 말고 시간을 투자하라. 81년생 때를 알아야 진퇴의 시기가 분별된다. 93년생 사랑에서 시작된 차이가 결과를 좌우하니 세심하게.



46년생 효도하는 자녀보다 잔소리하는 배우자가 낫다. 58년생 새로운 것에 관심 가지자. 70년생 베풀면 손조롭게 해결. 82년생 깊이 굴러가지 않아도 맑은 날만 계속되면 땅은 사막으로 변질. 94년생 과거 경험의 추이가 어린 자녀에게도 교육.



47년생 재산 나눔이 흐지부지될 수니 문서로 남겨라. 59년생 이상의 만남은 말쑥을 부른다. 71년생 남쪽에서 온 사람과의 거래는 성공. 83년생 과거를 잊은 사람에게 밝은 미래는 약한 것이 운명코도. 95년생 부모님의 기술력이 유용한 자질서였다.



김상회의四季

공업 중생

보릿고개를 지내던 시절에 비하면 선진국 대열에서 경제성장도 할 하게 두드러져 생활 수준이 높아진 것도 맞는데 상위층 부자들 말고는 중산층이라 불리던 부류의 사람들도 매우 어렵다고 이구동성이다. 필자의 오랜 신도 한 분은 주택자금대출을 받았을 당시에는 2%로 후반 대였던 금리가 60개월 주기 변동금리가 적용되면서 4% 중반으로 올라서 매달 60만원 이상의 이자를 더 내야 한다며 울상이다. 일 세대 일 주택인데 시중 물가와 함께 주택담보 금리까지 올라서 차라리 집을 팔아야 하나 하는 고민까지 하게 됐다며 이자 한 번 지연 없이 성실히 낸 경우임에도 조금도 우대가 없다고 한숨을 쉰다. 오히려 신용이 불량한 사람은 구제정책이 있는데 성실히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사람한테는 조금도 우대혜택이 없으니 뭔가 형평성이 없다며 이는 공정하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그래도 개인파산과 회생신청을 하는 경우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라 위로 아닌 위로를 했지만 형평성의 문제만큼은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 약삭빠른 사람들은 제도를 활용하여 임대아파트나 장기 전세를 받을 조건을 만들어 저비용 주거를 하면서 타고 다니는 차는 외제 차거나 고급 차인 경우도 많다고 신문에 기사가 나기도 했다. 채무를 지고 고의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는 주장도 보았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다. 지금 나는 이득을 취하는 것 같아도 의도가 순수하지 않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든 인과응보가 있게 된다. 개인의 업과 과보는 그렇다 치고 편리함을 앞세운 일회용 컵이나 플라스틱 페트병의 범람은 전체적으로 지구환경을 파괴하는 경우로서 우리 인간들의 공업이 되어 이상기후로 고통받는 결과가 되어버린다. “나 하나쯤이야”의 문제가 아니겠으나...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54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645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지역 이모저모

대구시

韓 국제 농기계 자재 박람회

국내외 농기계 및 자재 분야의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4 대한민국 국제 농기계자재 박람회(KIEMSTA 2024)’가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엑스코에서 4일간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에는 25개국에서 429개 기업(국내 335개, 해외 94개)이 참가해 1,902개의 부스를 운영하며, 최신 농기계와 자재를 선보인다. 또한, 해외 바이어 수출상담회, 스마트팜 시장 개척 세미나, 농업용 로봇 경진대회, 발농업 기계 현장 교육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개최된다.

특히 올해는 수소 트랙터, AI 농업용 로봇, 드론 등 미래 농업기술이 전시되어 자율주행 트랙터와 방제로봇 등 최첨단 농기계 기술을 체험할 수 있다. /대구=김준환 기자 kjh9@

울산시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 완료

울산시는 북구 효문동과 연암동에 있는 모듈화 일반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의 근로환경 개선과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추진한 ‘2024년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추진된다. 올해의 경우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모듈화 일반산업단지’ 내 녹지 면적 1만 1000㎡에 이팝나무 등 미세 먼지 저감 능력이 탁월한 산림청 권장수종 1만 384그루를 심었다.

특히 산업단지 내 공장 주변으로 이팝나무, 느티나무, 해송 등의 교목과 조팝나무, 꽃댕강나무 등을 다열·복층구조로 심어 밀도 높은 숲을 조성했다.

앞서 2022년에는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중산1·2차 일반산업단지 내 면적 1만 1000㎡에 느티나무 등 1만 824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2023년에는 총 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매곡2·3차 산업단지 내 면적 5000㎡에 편백나무 등 1만 7339그루를 심었다.

/울산=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창원시

내년 녹색자금 공모사업 선정

창원시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주관한 ‘2025년도 녹색자금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돼 6억원의 기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녹색자금을 포함해 총 10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산림복지 무장애 나눔 길과 나눔 숲을 조성할 예정이다.

무장애 나눔 길 조성 사업은 보행 약자와 이동 약자의 산림휴양 기회 확대를 목표로, 진해 목재문화체험장 일대에 약 1km 길이의 산책로를 조성한다.

이 산책로는 휠체어나 유모차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최대 경사도 8% 이하, 폭 1.5m 이상으로 설계돼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복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전남특자도, ‘라’자 넣어 ‘전라남특자도’ 변경

전남도, ‘전라남’으로 명칭 변경
역사·정체성 살리기 위한 결정
전문가 그룹·의회 등 종합 검토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전남도가 지역발전의 신(新) 성장동력으로 꺼내든 특별자치도 지역 명칭이 ‘전남’이 아닌 ‘전라남’으로 변경됐다.

‘전라남도’를 ‘전남’으로 축약할 경우, 전라도 1000년 역사와 정체성을 대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전라도(全羅道)라는 명칭은 1018년 고려 현종 9년에 전주의 ‘전(全)’과 나주의 ‘라(羅)’자를 합쳐 탄생한 지명이고, 구한말 남·북으로 분도하면서



전라남도청 전경.

전라남도(전남), 전라북도(전북)으로 나뉘게 됐다.

‘전’자를 그대로 살린 전북특별자치도와 달리 전남특별자치도의 경우

‘라’자가 빠지게 돼 “1000년 이상 이어져 온 역사성과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 때문에 끊이지 않았다.

특히, 전남도의회와 나주시의회는 특별자치도 명칭에 ‘라’자를 포함시킬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고,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소속 22명의 시장과 군수도 명칭 변경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전남도는 전문가그룹과 의회, 일선 지자체 의견을 종합 검토한 끝에 ‘전라남’으로 명칭 변경을 결정하고, 이를 공식화했다.

30일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열리는 특자도 설치 관련 첫 도민공청회에서

도 ‘전라남 특별자치도’를 공식 명식으로 사용했다.

특별법 명칭 변경도 추진 중이다. 지난 6월11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의원 16명이 동참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도 전남을 전라남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안팎으로 의견을 수렴해 ‘라’자를 살리기로 교통정리됐다”며 “특별법 법안의 경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도의회 입장을 듣도록 돼 있는 만큼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안(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자전거로 누비며 남해안 절경 즐겨요” ‘항공여행마켓’ 특가 항공권 등 이벤트

경남도, ‘투르 드 경남 2024’ 개최
통영·거제·남해·창원 300km 구간

경남도가 세계적인 프로도로 자전거 대회인 ‘투르 드 프랑스’에서 착안해 진행하는 ‘투르 드 경남 2024’가 오는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남해안 일대에서 열리는 가운데, 오는 9일 남해군 코스 65km 구간에서 대한민국 대표 건각들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진다.

이번 행사는 경남도가 주최하고 경남도체육회 및 대한자전거연맹이 주관하는 경쟁형 사이클 대회다.

경남도는 수려한 남해안의 풍광과 이순신 장군의 승전지를 국내외에 홍보하기 위해 이번 대회를 기획했으며, 대회 참가자들은 통영·거제·남해·창원에서 총 300km 구간을 달리게 된다.

오는 9일 오전 9시 30분부터 진행되는 남해군 대회의 출발지는 총렬사다. 남해군 코스는 총렬사~이순신 바다공원~서면스포츠파크~남면공설운동장~이동면미국마을~탈공연박물관~남해군보건소~고현면성산



지난 24일 경남도청 중앙회의실에서 ‘투르 드 경남 2024(스페셜대회)’를 준비하는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시

교차로~설천면 로터리공원으로 이뤄졌다. 특히 이번 대회는 대한자전거연맹 마스터스 랭킹 300위 이내 최상위급 기량을 갖춘 선수들이 참여하는 만큼 고품격 엘리트 자전거 대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 내년부터는 국제사이클연맹(UCI)이 공인하고, 세계적인 선수들이 참여하는 국제 도로 사이클 대회 ‘투르 드 경남 2025’로 확대될 예정이다.

/경남=이도식 기자

부산시, 내달 1일까지 시청 대회의실

부산시와 한국공항공사는 31일부터 11월1일까지 시청 대회의실 전면 홀에서 ‘2024항공여행마켓 in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부산발 항공권과 여행상품 할인판매, 참여 업체별 홍보 이벤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역항공사인 에어부산을 비롯해 이스타항공, 싱가포르항공, 베트남항공, 핀에어 등 김해공항 취항(예정) 5개 항공사와 하나투어, 모두투어, 노랑풍선 등 여행사, 김해공항 입점업체인 롯데면세점, 경복궁면세점 등 총 10개 업체가 참여한다.

에어부산은 국내선 특가 항공권을 유류세와 공항세 포함 편도 기준 ▲주중권(월~목) 3만9900원 ▲프리미엄

권(주말/성수기) 7만9900원에 판매한다. 항공권은 올해 동계 시즌 내(2025년 3월29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수량은 1일 각 100장씩 선착순 판매된다.

다음 달 13일부로 예정된 홍콩 노선 복항을 기념해 부산~홍콩 왕복 특가 항공권도 판매한다.

에어부산은 부산~홍콩 항공권을 유류세, 공항세 포함 왕복 총액 24만 9000원에 판매한다. 유효기간은 약 7개월(2024년 11월13일~2025년 6월30일)로 일부 성수기 기간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수량은 1일 50장씩 선착순 판매된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현재 코로나19 이전 90% 수준의 회복세를 보이는 김해공항 국제선 여객을 완전 회복해 내년에는 연간 항공여객 1000만명 재달성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인구 감소 대응, 자유로운 휴양 공간 마련

경주시, 토함산 ‘웨케이션 빌리지’

경주시가 지방소멸 위기를 맞아 생활인구 유치에 간간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생활인구는 정부가 정주인구뿐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면서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지역의 인구로 보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마련됐다. 이는 주민등록지 외 지역에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과 외국인으로 구성된다.

시는 문무대왕면 토함산자연휴양림 내 내년 10월까지 4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웨케이션빌리지를 조성한다. 이 사업은 스타트업 기업 및 청년

층의 업무 방식 변화에 발맞춰 자유롭게 일하면서 휴양을 즐길 수 있는 공간 마련으로 젊은층 유입, 정착을 통해 고령화된 동경주 지역의 인구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지에는 공유하우스 9동, 공유오피스 1동, 부대시설 2동이 조성된다. 공유오피스는 기존 국학관(953㎡)을 리모델링해 건립되며, 부대시설로는 음악감상실, 갤러리, 요가 등의 다양한 공간이 들어선다. 특히 시는 동경주지역에 추진 중인 신라킹덤오션과 문무해양프로젝트의 다양한 해양레저 프로그램과 연계해 웨케이션빌리지를 운영할 방침이다. /경주(경북)=최지웅 기자

바스타비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해리스·트럼프 미 대선 앞두고 투표함 화재 잇따라
▲중국, 1500억대 뇌물 전 구이저우성 서기 사형 집행유예 /사진 뉴스스

▲남아공, 이스라엘 가자 대량학살 증거 문서 ICC 제출
▲핀란드 대통령, 시진핑과 회담서 “북한 러 파병 등은 도발”



▲일본 증시, 반도체주 매수세에 3일 연속 상승 마감
▲노르웨이 오슬로서 트램 탈선… 상점으로 돌진 /사진 뉴스스



넥슨
“전 세계 인정받는
기업 될 것”
L2



Life

삼성전자
어린이 위한
갤럭시 체험관 오픈
L4



직구 안전성검사, 온라인몰 등급제 서울시, ‘공정거래’로 활력 올린다

해외직구 제품 선별, 안전성 검사
전자상거래·공정거래 상담센터 운영
사기 사이트 적발, 온라인 모니터링

서울시가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공정 경제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올해 해외 직구 상품 안전성 검사와 전자상거래센터·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강화했다.

시는 외국계 온라인 쇼핑몰 직구 비중이 늘면서 소비자 불만 건수가 증가하자 해외 플랫폼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시행했다.

시가 안전성 검사를 의뢰한 768개 제품 중 90개(12%) 제품에서 유해성이 확인됐다. 슬라임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머리띠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비치볼에서는 납과 카드뮴 등이 검출됐다. 시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 유해성이 발견된 물품의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

시는 “어린이 제품, 위생용품 등의 판매량과 계절 수요를 고려해 검사 품목을 선정했다”며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격주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자 금년 8억9700만원을 들여 전자상거래센터와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운영했다.

올 8월까지 진행된 소비자 상담 4892건 가운데 2970건에 대한 피해 구제를 완료했다. 구제율은 60.7%이며,

▲환불·배상 2468건 ▲계약이행 288건 ▲합의 182건 ▲교환·수리 32건 순이었다. 전년 대비 상담 건수는 15.6%, 피해 구제 건수는 41% 증가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또 시는 시장 감시 활동을 펼쳐 사기 사이트 31개를 적발하고 피해 다발 업체 7곳을 공개했으며, 소비자 피해 주의보 2건을 발령했다. 주요 사례로는 광고 없는 유튜브 계정 공유 사기 주의, 온라인몰 부업 사기 주의 등이 있었다.

아울러 시는 전자상거래업체 12만 9922곳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영업 중인 업체를 모니터링하고, 소비자보호 관련 5개 분야(사업자 정보 표시, 청약 철회, 결제 방법, 이용 약관, 개인정보·보안)의 별(★, 우수) 등급을 매겨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여의도 4.6배’ 특별계획구역 추진 속도

서울시, 특별계획구역 정비방안 내놔
용적률·건폐율 등 최대범위로 완화

서울시가 여의도 4.6배 규모 ‘특별계획구역’의 사업 실현성과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비 방안을 내놔다.

‘특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현상 설계 등을 통한 창의적 개발 방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안을 작성하는 데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 결정하는 구역을 의미한다.

지난 2022년 말 기준 서울시가 지정·관리 중인 특별계획구역은 총 588개소다. 강남 코엑스, 용산전자상가 일대, 잠실경기장 등 대규모 개발이 예상되는 주요 부지를 포함해 약 1400만㎡ 규모다.

시 관계자는 “현재 지정된 588개소

중 55%인 325곳이 사업 추진이 되지 않고 있으며, 지정 이후 10년 이상 지난 장기 미추진 구역도 전체의 24%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제도 손질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시는 기존 구역 중 10년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거나, 개발 목적이 불명확한특별계획구역을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키로 했다.

특별계획구역 지정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지정 후에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최대한 제공한다.

서울시 정책 방향에 맞게 구역을 개발하거나 창의적 계획안을 제안할 경우 용적률과 건폐율, 높이와 용도 기준을 법적 최대 범위로 완화하고 필요한 경우 용도지역 간 변경도 허용할 것이라고 시는 부연했다.

/김현정 기자

고양시,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 156명 채용

내달 7일, 킨텍스서 취업박람회 개최
우수기업 30개사 참여, 현장면접 진행

고양시는 기업과 구직자 간 효율적인 매칭을 위해 오는 11월 7일 킨텍스 6홀에서 ‘2024 고양시 중장년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경기도 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북부사무소와 고용노동부 고양고용노동지청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중장년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일자리기관들이 총출동해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는 △채용관 △특강관 △취업준비관 △내일설계관 △인사담당자 커뮤니티 △부대체력관 등 다양한 구역으로 구성됐다.

채용관에는 고양시 우수 기업 30개사가 참여하여, 간호조무사, 경리, 물류사무, 사회복지사, MD, 직업상담사, 조리사 등 여러 직종에서 156명을 채용하기 위한 현장 면접이 진행된다. 국립암센터, 이케아, 에프씨웍스도 기업 홍보존에서 채용 상담을 진행하며, 헤드헌팅 기업과 전직지원 상담 부스는 경력직 및 전문 인력의 이직·전직을 돕는다.

취업준비관에서는 취업 컨설팅과 AI 면접 컨설팅, 직업심리검사를 통해 구직자 맞춤형 진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심층 상담이 필요한 구직자는 내일설계관에서 구체적인 일자리 탐색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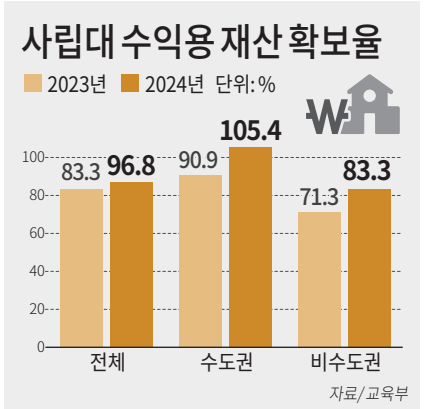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대학 60% “기숙사비 현금 일시불만 받아요”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결과 공개
사립대 수익용 재산 확보율 96.8%
카드납부 가능한 기숙사 20%에 불과

지난해 관련법 개정으로 대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부담이 완화되면서, 올해 사립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96.8%로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전년보다 소폭 감소한 가운데, 기숙사 10곳 중 6곳이 기숙사비를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회의는 30일 4년제 일반대·교육대 193곳의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이 같이 공개했다.



사립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96.8%로 전년(83.3%)보다 13.5%p 증가했다. 지난해 9월 ‘대학설립·운영 규정’이 개정되면서 대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부담이 완화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중 수도권 대학은 105.4%로 전년(90.9%)보다 14.5%p, 비수도권 대학은 83.3%로 전년(71.3%)보다 12.0%p 증가했다.

지난해 사립대 법인의 사학연금(퇴직수당 포함),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등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53.1%로, 전년보다 1.9%p 증가했다.

대학 기숙사 59.9%인 151곳은 현금으로만 기숙사비를 일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의 총 252개 기숙사를 대상으로 기숙사비 납부 현황(중복 가능)을 조사한 결과다.

카드 납부가 가능한 기숙사는 51곳(20.2%)에 그쳤고, 현금 분할 납부가 가능한 기숙사는 78곳(31%)이었다.

/이현진 기자 lhj@

서울시, 난임시술비 ‘출산 당 25회’로 확대

평생 25회서 확대… 본인 부담금도↓

서울시는 출산을 간절히 원하는 부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 ‘난임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시는 기존에 ‘난임부부 당’ 생애 총 25회로 제한했던 시술 지원을 앞으로는 ‘출산 당’ 25회로 늘리기로 했다. 예컨대 난임시술로 첫 아이를 가지

면서 최대 지원 횟수(25회)를 모두 썼다고 하더라도 둘째, 셋째를 갖고자 할 때 아이마다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45세 이상은 절반, 44세 이하는 30%로 차등 부담해 왔던 ‘건강보험 급여 본인 부담금’도 이제 연령 관계없이 모두 30%만 본인이 내면 된다.

/김현정 기자



▲‘부상 결장’ 잦아진 손흥민…맨시티 전도 뒤통나
▲‘MLB 단일 시즌 최다 121패’ 42세 베나볼 감독 선임

/사진 뉴시스

▲‘오타니 효과’ 일본 월드시리즈 시청자 1515만명 육박
▲‘4년만 이혼’ 김민재, “양육비 월 1000만원 넘을듯”



▲유해란 등 출격…LPGA 토토 저팬 클래식 31일 개막
▲국립중앙박물관장, 수장고 누수 사과…“재발 방지 만전”

/사진 뉴시스

버스타비 **Yap**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SKT Enterprise



AI 기술 없이도 AI 회사가 될 수 있다

투자 보고서 작성부터
재무, 마케팅, 고객 서비스, HR까지
다양한 업무를 도와주는 SKT Enterprise AI

금융, 제조업, 공공 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글로벌 수준의 AI 서비스를
누구나 손쉽게 누릴 수 있습니다

SKT Enterprise는 AI로
대한민국 산업을 새롭게 키웁니다

AI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힘
SK telecom

SKT Enterprise AI는 누구나 쉽게 AI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는 Enterprise AI Marketplace와
기업의 다양한 분야와 니즈에 따라 Custom 구축이 가능한 맞춤형 AI 기업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지금 [Q SKT 엔터프라이즈](#) 를 검색해 보세요